

2009 SEP·OCT Vol.77 **09·10**

건강한 세상을 향한 네비게이션 -

인하대병원

인하대병원

국제진료센터 개소

International Healthcare Center



국제진료센터 개소

Opening of International Health-Care Center

일시 : 2009년 9월 15일





2009. 09+10

CONTENTS

Sep.Oct Vol.77

- | | | |
|----|-------------------|---|
| 04 | 월례조회사 | 최고 수준의 진료서비스, 환자를 위해 갖추어진 병원! |
| 06 | 행복을 전하는 글 | 좋은 사람에게 있는 여덟가지 마음! |
| 07 | Well-being Report | 알고 마시는 맞춤 커피로, 가을을 마시자! |
| 10 | 국제진료센터 개소 | 수도권 최고의 외국인환자 전용 진료센터 신설 |
| 12 | 의학정보 1 | 건강검진과 건강관리 |
| 14 | 의학정보 2 | 갑상선암 이것만은 제대로 알자 |
| 16 | 건강책갈피 | 여자를 안아주는 유방성형 전문의가 되다 |
| 18 | 해외 의료봉사 후기 | 몽골 - 무언가를 주고, 진진함을 얻어오는 몽골 의료봉사
스리랑카 - 욕심 없고 여유 있는 스리랑카, 민간의료는 '그림의 떡' |
| 21 | 자원봉사 후기 | 머리로 생각하는 그런 삶을..... |
| 22 | 글이 머무는 풍경 | 마음을 담은 관심은 고객 감동의 멀지 않은 길
내 생애 첫 지리산 종주기
가을비 |
| 28 | 운동처방사의 운동법 | 정말로 당신의 자녀를 사랑하신다면... *^^* |
| 30 | 리더들의 추천도서 | 마음을 꽉 채우는 찬란한 책과의 만남 |
| 32 | 톡톡약물상담 | 타미플루는 예방접종으로 대체할 수 없어 |
| 34 | 병원소식 | 인하대병원소식 / 파랑새 소식 |
| 38 | 알립니다 | 인사동정 / 자원봉사자모집
Global Inha / 퀴즈 퀴즈 제50회 / 발전기금 / 무료공개강좌 |

좋은 병원이란 최고 수준의 진료서비스, 환자를 위해 갖추어진 병원!



인하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 여름은 비가 많이 오고, 몹시 무더웠던 것 같습니다.

JCI인증 준비 때문에 휴가를 못 가신 분들도 있겠지만, 즐거운 여름휴가를 보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최근 고려대에서 JCI 인증을 받으면서 감격의 순간들을 일간지를 통해 지리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준비과정이라던가 인증 받는 순간의 기쁜 모습들이 상상이됩니다.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마음 고생을 하고, 인증을 받고서 모든 직원들이 감격의 눈물을 흘렸으며, 하루 중 일 생맥주 파티를 열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도 JCI 인증을 받으면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Baseline Consultation 때 우리 교직원들의 열정적인 마음을 보면서 똑같은 모습이 재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6월에 우리 병원은 Baseline Consultation 때 심사관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Mock Survey를 반년을 앞당겨서 오는 11월 18일부터 25일까지 8일 동안 우리는 온 최선을 다해 심사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병원은 Global Standard를 추구하는 병원이고 충분히 역량이 있기 때문에 잘 할 것이라고 봅니다.

정말 자랑스럽고 고마운 인하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난해부터 불어 닥친 금융위기의 어려움 속에서도 인하가족 모두가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2009년도 상반기 경영실적은 지난해에 비해 지속적인 증가를 나타냈습니다. 외래환자는 전년 대비 일평균 약 1.5% 증가를 나타냈으며, 진료수입은 전년 대비 약 5% 높은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입원환자는 약 1.8%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주위 경쟁병원에 비해 낮은 증가율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8월 24일에 병원 개원 이래 외래환자가 최고 기록인 3,750명을 기록했습니다.

이 기록을 보면서 우리병원의 외래환자 목표표를 4,000명으로 정하였습

니다. 우리는 능히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하가족 모두가 이 목표 달성을 위해 환자에게 더 친절하고 감동시키며, 경쟁력 향상을 위해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하가족 여러분!

지난 8월 29일에는 송도 컨벤시아에서 폐암센터 개소기념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습니다. 미국, 일본의 폐암 전문가들이 참가하였으며, 국내에서도 최고의 전문가들이 참가하여 열띤 토론의 장을 가졌습니다. 역시 폐암도 인하대병원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국제 인증인 FERCAP도 오는 11월쯤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DDS 및 신 의료기술개발 공동연구소가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하고 장비들이 입고 중에 있어 조만간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게 됩니다. 앞으로 세계적인 연구개발센터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오는 9월 15일에 국제진료센터가 개소하게 됩니다. Global healthcare의 중심병원을 지향하는 우리병원으로서는 많은 국제환자들의 진료를 위해 시설, 인력 및 코디네이터 등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영종메디컬센터도 금년 내에 착공식을 갖고 2011년에 개원하여 해외환자를 진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병원은 지리적 이점과 인프라 등 모든 조건이 타 병원에 비해 유리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병원이 지향하고 있는 동북아 메디포트의 중심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인하가족 여러분!

좋은 병원이란 어떤 병원이라고 생각합니까?

좋은 병원이란 환자에게도 직원에게도 좋은 병원이어야 합니다. 환자에게 좋은 병원이란 최고 수준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이며, 서



비스는 환자의 불편을 덜어주고 인사를 잘하는 것만이 아니라, 시설, 동선, 의료의 질 등의 모든 것이 환자를 위해 갖추어진 병원이 좋은 병원이라 하겠습니다. 직원에게 좋은 병원이란 만족하고 즐거운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병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즐거운 직장생활은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행복을 추구하는 지혜를 발휘할 때 직장생활은 만족스러워 집니다. 긍정적인 마음, 자신감, 자기 일에 매진할 수 있을 때 행복한 직장생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서비스는 외부고객에 대한 서비스뿐만 아니라, 내부고객에 대한 친절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동료들 배려하는 것, 동료들 웃음 짓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 자신에게도 행복한 직장생활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요즘 변화 혁신 교육이 7월 15일부터 12월초까지 16차에 걸쳐 1박 2일씩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우 호응이 좋고 진지하며, 뭔가 해보려는 의지를 보았습니다.

아놀드 토인비가 말한 Harmonize with change, 즉 변화에 잘 적응하지 않으면 불행한 것입니다. 금번 변화 혁신 교육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나부터 변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나부터, 관리자도 경영자도 일선에서 일하는 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라는 시 한편을 소개하겠습니다.

힘들어 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두려워 마세요.

당신 때문에 행복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 때문에 살 맛 난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이 있어 위안이 되고

감사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은 귀한 존재입니다.

당신 때문에 때로는 웃음 찾고 행복해 하고

당신이 주는 그리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이 아니라면,

당신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면

이 모든 것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도 누구 때문에 위안을 받기도 하고 감사해 하겠지만,

당신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나 때문에 웃음을 찾고 행복해 하는 날이 올 때까지 환자에게 그리고 동료에게 감동을 주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신종 인플루엔자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계절적으로 겪는 독감 정도로 인식이 바뀌었으면 합니다. 그 위험군 환자들은 조심해야겠지만, 너무 걱정하는 환자들에게 여러분들의 따뜻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우리병원은 타병원보다 앞서 9월 14일부터 격리된 시설을 갖추고 신종 인플루엔자 환자를 진료할 계획입니다. 여러분들도 인플루엔자에 감염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예방책은 자주 손을 씻고 기침예절만 잘 지켜도 충분히 예방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풍요로운 수확의 계절에 인하가족 여러분의 가정에도 풍성한 행복의 결실을 맺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9월 2일

의료원장 이 두 익

좋은 사람에게 있는 여덟가지 마음

[좋은 글 중에서]

향기로운 마음

향기로운 마음은 남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나비에게.. 벌에게.. 바람에게..
자기의 달콤함을 나누는 꽃처럼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베풀어 주는 마음입니다...

여유로운 마음

여유로운 마음은 풍요로움이 선사하는 평화입니다.
바람과 구름이 평화롭게 머물도록
끝없이 드넓어 넉넉한 하늘처럼
비어 있어 가득 채울 수 있는 자유입니다...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은 존재에 대한 나와 의 약속입니다.
끊어지지 않는 믿음의 날실에
이해라는 구슬을 꿰어놓은 엄주처럼
바라봐주고 마음을 쏟아야 하는 관심입니다...

정성된 마음

정성된 마음은 자기를 아끼지 않는 헌신입니다.
뜨거움을 참아내며 맑은 녹빛으로
은은한 향과 맛을 건네주는 차처럼
진심으로부터 우러 나오는 실천입니다...

참는 마음

참는 마음은 나를 바라보는 선입니다.
절제의 바다를 그어서 오롯이 자라며
부드럽게 마음을 비우는 대나무처럼
나와 세상이치를 바로깨닫게 하는 수행입니다...

노력하는 마음

노력하는 마음은
목표를 향한 끊임없는 투지입니다.
깨우침을 위해 세상의 유혹을 떨치고
머리칼을 자르며 공부하는 스님처럼
꾸준하게 한 길을 걷는 집념입니다...

강직한 마음

강직한 마음은 자기를 지키는 용기입니다.
깊게 뿌리내려 흔들림없이
사시사철 푸르른 소나무처럼
변함없이 한결같은 믿음입니다...

선정된 마음

선정된 마음은 나를 바라보게 하는 고요함입니다.
싹을 틔우게 하고 꽃을 피우게 하며
보람의 열매를 맺게 하는 햇살처럼
어둠을 물리치고 세상을 환하게 하는 지혜입니다.

와인과 커피의 다른 이유

알고 마시는 맞춤 커피로, 가을을 마시자!

악마처럼 겹고, 지옥처럼 뜨겁고, 천사처럼 순수하며, 사랑처럼 달콤하다고 말하는 커피,
지구의 3분의 1 이상이 즐겨마시고 있는 커피, 커피 전문점의 발달로 에스프레소나, 거품 가득한 카푸치노,
또는 달콤한 카라멜 마키아또나 등 다양한 커피의 '맛'을 즐기는 마니아가 생길정도이다.

와인은 진한 맛일수록 진한 맛을 내지만 커피는 와인과 달리 갓 볶아 낸 커피일수록,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은 원두커피일수록 좋다고 한다.

커피가 오래되면 불포화 지방이 별질되어 건강의 저해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우리의 아침을 열어주는 커피, 웰빙 커피를 즐기는 방법은 없을까?

또 커피가 우리의 몸에 미치는 영향과 다양한 커피종류의 열량과 성분을 알고 이 가을,
나에게 안성맞춤인 커피를 즐겨봄은 어떨는지.





커피의 주성분은 카페인, 클로로겐산, 나이아신, 칼륨 등이 있는데 커피의 주성분인 카페인은 우리 인체에서 다양하게 작용한다. 커피의 종류와 농도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잔에는 65mg의 카페인이 들어있다.

적당한 카페인은 신체에 활기를 불어 넣는 자극제이며 약간의 이뇨작용을 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등 각종 대사 작용을 원활하게 해준다.

보통 하루 5~6잔 정도의 커피는 신체에 별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단, 지, 과다섭취할 경우, 단시간에 많은 양을 마시면 카페인증(불안, 초조, 불면, 두통, 설사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에 따라 카페인 분해속도가 다르므로, 자신이 몇 잔 정도를 마셨을 때 가장 상쾌한 기분이 되는 지 스스로 판단하고 양을 조절하는 것이 좋다.

커피는 처음에는 약리효과 때문에 널리 퍼지게 되었고 중세에서 근대에 이르기까지 의약품으로 사용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전쟁 이후 커피소비가 증가하면서 우리의 생활에 깊숙이 관여하게 되었다.

한때, 건강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커피를 피해야 할 음료로 여기기도 했다. 또 머리가 나빠진다, 임신 중 커피를 마시면 태아의 피부가 검어진다 등 여러 가지 속설도 많았다. 그러나 카페인의 효과가 발견되고 과학적인 분석과 임상실험 결과, 몸에 해롭지만은 않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의학적인 관점도 많이 바뀌게 되었다.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커피, 과연 건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커피의 긍정적 한 잔

위암 예방 효과 _일본 아이치현 암센터연구소 연구진은 약 2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역학조사에서 커피를 매일 3잔 이상 마시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마시지 않는 사람보다 위암에 걸릴 위험률이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발표했다. 커피가 위암 발생률을 낮추는 것은 커피에 포함되어 있는 항산화 물질 등이 암세포 발생을 억제하고 커피를 즐겨 마시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서양식 식습관이 위암에 대해 예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혈압강화 효과 _커피를 마시면 일시적으로 혈압이 올라간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커피는 혈압을 올라가게 한다는 생각이 상식이었다. 일본 호이 의과대학 연구진은 약 4천 명의 중년 남성들을 대상으로 커피를

마시는 습관과 혈압과의 관계를 조사했다. 그 결과 커피를 즐겨 마시는 사람은 오히려 혈압이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연구에 따르면 커피를 매일 1잔 마시면 확실히 최대혈압이 0.6mmHg, 최소혈압이 0.4mmHg 내려가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매일 커피를 마시는 양이 늘어남에 따라 혈압이 내려가는 정도가 비례했다.

계산력 향상 _카페인이 들어있는 식품이 머리를 맑게 해주고 일의 능력을 향상시켜준다는 것은 일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다. 그러면 왜 커피를 마시면 계산력이 향상되는 것일까? 연구자들은 카페인에 신경을 활성화하는 작용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다이어트 효과 _커피의 카페인은 인체의 에너지 소비량을 증가시켜 커피는 대사를 항진시켜 체중감량을 도와주기도 한다. 문제는 커피에 타 마시는 설탕과 프림이다. 다이어트를 한다면 당연히 블랙커피이다.

음주 후 숙취방지과 해소 _술에 취한다는 것은 알코올이 체내에 분해되어 아세트알데히드로 변하는 것이며 이것이 몸에 오랫동안 남아 있는 것이 숙취현상이다. 카페인은 간 기능을 활발하게 해 아세트알데히드 분해를 빠르게 하고 신장의 움직임을 활발하게 하여 배설을 촉진시킨다. 술을 마신 후 한 잔의 물과 커피를 마시면 큰 도움이 된다.

입 냄새의 예방 _커피에 함유되어 있는 퓨란류에도 같은 효과가 있다. 특히 마늘의 냄새를 없애는 효과가 높다. 단, 커피에 유류나 크림을 넣으면 퓨란류가 먼저 결합을 하기 때문에 효과가 없어진다.

기타의 이로운 점 _하루에 커피 4잔 이상을 마시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대장암에 걸릴 확률이 24%가량 낮았으며 커피가 우울증과 자살률을 떨어뜨려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는 외국의 연구보고도 있다. 또 마라톤 선수가 레이스 중에 마시는 드링크에 카페인 음료가 많은 것은 운동할 때 지구력을 높이기 때문기도 하다.

커피의 부정적 한 잔

숙면 방해 _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커피를 마시면 잠이 오지 않는다고 호소하는 경우이다. 커피의 카페인이 중추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인데 카페인의 혈중농도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는 대개4시간이다. 따라서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는 잠자리 시간을 고려해서 마시

는 것이 좋겠다.

때론 피로 가중 건강한 사람에게는 중추신경을 자극하여 기분전환과 함께 작업능률을 올려주지만 피로가 쌓인 경우 피로를 더욱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위장 장애 커피가 위벽을 자극, 위산분비를 촉진하고 위장과 식도를 연결하는 괄약근을 느슨하게 만들어 위산이 식도에 역류, 속 쓰림을 악화시킬 수 있다. 하루 6잔의 커피를 마시는 경우 위궤양 발병률이 높다는 보고가 있다. 레귤러커피나 저 카페인 커피도 마찬가지이다.

심장 심장이 예민한 경우는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을 유발하여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일 수 있다. 대개 카페인 250mg은 호흡수를 늘림과 함께 1시간 내에 수축기 혈압을 10mmHg 상승시키고, 2시간 내에 심박 수를 증가시킨다. 또 600mg정도를 마시면 기관지가 확장된다.

이로운 적당한 한 잔

커피를 건강과 관련지어 깊게 생각하는 지나친 걱정이나 기대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람마다 카페인 분해효소의 능력에 차이가 있으므로 스스로의 경험을 통해 적당량을 조절해 마셔야 한다. 아무리 좋다고 하는 것도 과하면 '독'이 되는 것이다.

웰빙 시대를 사는 요즘, 커피와 건강의 관계에 대하여서는 사실 명확한 해답은 없다. 그러나 또 우리에게 이렇게 깊숙이 들어와 있는 친숙한 기호식품도 드물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지나치면 안 좋은 것과 마찬가지로 커피도 적당량 이하를 섭취하였을 때 이로운 수 있다. 과도한 섭취는 무엇이든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 여기서 적당량은 보통 마시는 잔으로 1~2잔 정도라 하겠다.

커피는 안전한 기호식품이다. 아침 커피는 신장을 자극하여 밤사이 몸에 축적된 노폐물을 빨리 배출시키고, 점심 후의 커피는 위를 자극하여 소화를 도우며, 오후 커피는 근육에 작용에 피로감을 덜어줄 수도 있다. 물론 위장 장애가 없고 숙면에 방해가 안 된다면 말이다.

이제, 무심코 마셨던 '커피'에 대한 생각을 버리자.

커피가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좋은 영향에 관한 관심과 관찰은 커피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일이다. 그러나 중요한 건 자신의 몸에 맞게, 상황에 적절한 어울리는 맞춤 커피로, 또 다이어트를 생각한다면 그에 적당한 방법으로 건강한 웰빙식 커피를 즐길 줄 아는 센스쟁이가 되어보면 어떨까?



커피에 관한 이런 저런 얘기들~

1. 맛있는 커피, 그 커피의 칼로리 알고 마시자!

지난여름, 얼마나 많은 아이스커피를 마셨는가? 아이스커피 한 잔에 들어 있는 칼로리는 식사 한 끼 수준에 달하기도 한다.

- 까페아메리카노 - 5Kcal, 에스presso 머신으로 추출한 기본 커피
- 카푸치노 - 90kcal, 에스프레소와 스팀 밀크, 그리고 진한 거품, 시나몬 가루
- 까페라떼 - 110kcal, 에스프레소와 스팀밀크
- 까페모카 - 240kcal 에스프레소, 초콜릿 파우더, 스팀 밀크와 거품
- 카라멜마키아또 - 140kcal, 에스프레소, 캐러멜 약간, 우유거품
- 화이트초콜릿모카 - 270kcal, 화이트초콜릿 모카 시럽, 에스프레소, 스팀밀크

위의 기준은 커피 전문점의 Short컵 기준이고 휘핑크림을 뺀 경우이다. 여기에 시럽과 크림을 얹는다면 50 ~ 80kcal를 추가하여 생각하여야 한다. 또 아이스의 경우는 카페 아메리카노의 경우는 5Kcal가 더 업 되지만 다른 커피의 경우는 100Kcal가지도 올라갈 수 있다.

2. 커피마다 다른 카페인 함량

커피는 좋은 품질일수록 카페인 함유량이 적다. 그래서 로부스타 커피에 비해 아라비카 커피에 카페인 함량이 적다. 커 보통 한잔에 60~90mg의 카페인이 들어있다고 보면 된다.

원두 가공과정, 커피의 종류 등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하루 카페인의 하루 허용량은 일반인의 경우 400mg이다.

또 원두뿐 아니라 우리가 어느 커피를 먹느냐에 따라서도 카페인의 함량은 달라진다.

인스턴트 커피(대부분의 믹스커피)의 경우 카페인 함량이 높다. 반대로 커피 전문점에서 이용하는 에스presso 머신으로 추출하는 커피에 카페인의 함량은 가장 적다. 짧은 시간에 추출하는 방법이라 맛은 진해도 카페인의 함량은 적은 것이다.

드립커피(핸드드립이나 가정용 추출기로 내린 커피)는 이 둘의 중간 정도에 해당되는데 카페인을 줄여 먹으려면 추출된 바닥의 나머지 부분의 커피는 먹지 않는 것이다.

3. 커피와 잘 어울리는 음식

- 뜨겁고 쓴 아메리카노 커피에는 단 초코 케익
- 뜨거운 카페라떼라면 치즈 케익
- 차가운 아이스커피라면 스콘이 잘 어울린다.

글 · 이정희 | 자유기고가



공항픽업에서 진료까지 One-Stop 서비스 -
외국인환자 진료를 위한 최적의 국제진료센터

수도권 최고의 외국인환자 전용 진료센터 신설

국제진료센터(International Healthcare Center) 개설의 배경은 의료서비스관광 산업이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하며 의료서비스가 단지 국내환자들만 상대하는 상황에서 벗어나 외국으로 의료서비스가 진출하거나 외국의 환자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관광도 즐기고 치료도 받는 의료서비스의 수출상품화 시대가 도래되었다. 이와 더불어 정부에서는 2009년 5월 해외환자 유치관련 의료법의 개정으로 외국인환자 대상 환자 유인, 알선행위를 허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의료산업화의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병원경영진의 적극적 추진하에 국제진료센터를 개설하게 되었다.

2009년 1월 대통령 신년국정연설에서 17대 국가 신성장동력 사업으로 선정되며 주목을 받기 시작한 의료서비스 관광사업은 국내의료자원의 과잉 해소, 교통발달에 따른 환자의 해외이동이 편리해지며 촉발된 의료시장 글로벌화, 의료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싱가포르, 태국 등 의료관광상품의 전문화 등으로 이제 병원계에서는 해외환자 유치는 피할 수 없는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다. 많은 기대와 더불어 우려도 있지만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는 인하대병원의 국제진료센터를 주목해 주기 바란다. 물론 국제진료센터가 있기까지 국제협력팀의 노고를 치하하지 않을 수 없으며 앞으로도 공생관계는 지속될 것이다.



인천국제공항, 송도국제신도시와 인접해 있어 해외환자 유치 및 접근성에서 유리한 인하대병원 국제 진료센터 개소와 더불어 외국인환자 진료의 전문성, 편의성 등 서비스 개선을 통하여 향후 해외환자 유치 증대 및 국내 외국인환자의 진료서비스 개선이 기대된다. 또한 해외환자 유치 및 외국인환자 진료편의 제공을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를 갖춘 병원을 만들겠다는 신념으로 국제의료기관평가위원회(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 인증을 준비 중이며 내년 6월이면 성공적 성과물이 기대되고 있다. 그 외에도 병원국제화를 위해 2009년 5월 국제협력팀(International Affairs Team)을 구성하여 병원국제화 조기구축을 위한 국제진료센터 개설에 박차를 가하였다

해외환자 유치 및 국내거주 외국인들이 건강상의 문제로 불편함이 없도록 국내 최고의 의료진을 바탕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설된 국제진료센터는 이양 국제진료센터 소장이 새로이 부임하였다. 이 양 국제진료센터 소장은 “미국 뉴욕에서 20여 년간의 외국인 진료경험을 바탕으로 말 뿐만이 아닌 실제 환자진료에 있어 전문적이고 신속한 진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환자진료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포부를 밝혔다.

국제진료센터에서는 첫째 외국인 환자에 대한 일관성 있고 효율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둘째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홍보 강화 및 마케팅 경쟁력 확보, 셋째 향후 영종 메디컬센터 운영을 위한 경험 축적을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목표아래 병원 3층에 총 70평의 외국인환자를 위한 전용공간과 4개의 진료실에 이양 소장을 비롯하여 간호사 2명, 코디네이터 2명, 원무수납 1명 등의 인력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특히 영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에 대한 전문코디네이터가 배치되어 언어 서비스가 제공되며 외국인 진료시 의사소통의 불편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2007년 7,900명에서 2008년 27,480명으로 248% 폭발적 증가세를 나타낸 해외유치환자 실적(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도 알 수 있듯이 향후 우리나라의 외국인 의료관광객은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까지 해외환자의 유입경로는 지인소개, 광고 등을 통해 내원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지인소개에 기인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본원 모든 구성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원의 국제진료센터가 많은 준비를 해왔지만 앞으로 할 일도 많이 남아있다. 첫째, 국제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 둘째, 외국어서식, 외국인대상 안내자료 제작, 외국인환자통계관리 등 내부인프라 구축, 셋째, 외국어 홈페이지, 외국어 홍보책자, 국제행사 홍보 등 구체적 홍보계획을 수립해 나아가야 한다.

9월 15일 개소한 국제진료센터는 외국인 진료에 전문성 및 편의성을 도모하여 외국인환자에 대한 진료서비스가 한층 업그레이드 될 것이며, 나아가 병원 국제화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확신한다. 센터 개설에 많은 도움을 주신 병원의 임직원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각과의 산통을 겪고 전문인력보강 및 독립공간을 확보하고 탄생하는 국제진료센터의 희망찬 미래가 펼쳐짐을 센터 모든 구성원의 이름으로 선언한다.



건강검진과 건강관리

재테크 열중하려면 건강테크부터 잘 해야~

건강의 중요성은 사람이 돈을 잃으면 일부를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절반을 잃는 것이며,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말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는 물질 만능의 시대로 돈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많은 사람들은 재테크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과연 돈이 건강보다 중요할까요? 이 시점에서 저는 건강테크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하고자 합니다.



Health is Wealth, Health is The Key

신용운 교수 | 건강증진센터 소장, 소화기내과

• 전문분야 : 소화기질환, 위·대장질환

• 진료시간 : 월·금(오전), 수(오후)

• 문의 : 건강증진센터 ☎ 032-890-3331

소화기내과 ☎ 032-890-2224



요즘 우리는 보험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각종 보험(건강보험, 암보험, 생명보험)들은 각종사고나 질병 또는 재해 시 충분히 보상해 줄 것을 약속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사용하는 차량에도 혹시나 생길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일 년에 수십만 원씩을 소멸되는 보험에 들고 있는 형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미 질병에 걸리거나 또는 사고로 건강 또는 생명을 잃은 후에 받게 되는 각종 보상이 정작 본인에게는 큰 의미가 없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자동차에 투자하는 작은 보험료에 준하는 작은 비용만 투자하여도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각종 암을 비롯한 성인병(뇌질환, 심장질환 등)을 조기에 발견하여 건강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검진은 왜 필요할까요?

사람은 누구나 한평생 건강하게 살기 원합니다. 건강은 최고의 자산이며 한번 잃은 건강은 되찾기가 어렵습니다. 현대의료의 특징은 일단 몸이 아프거나 이상신호가 와야 병원에 내원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심장질환(급성 심근경색) 뇌질환(뇌출혈 뇌경색) 등 성인병질환 및 각종 암 질환이 대부분 진행된 상태로 발견되어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여도 비용에 비해 치료결과 및 예후가 불량하고 생명을 위협하므로 대부분의 환자나 보호자들은 결과를 두려워하고 미리 발견하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되어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통하여 조기에 각종 암을 비롯한 뇌질환 심장질환 등 성인병을 발견 하게 되고 주치의의 지시에 따라 관리하신다면 병의 완치율을 크게 높이고 예방이 가능해지며 건강하게 사회생활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실 수 있으므로 40세 이상 성인에서 1년에 1번씩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원에서 교직원 정기검진이 시행된 2005년부터 매년 1~2명씩 신장암, 대장암, 갑상선암 등이 발견되었으나 모두 조기에 발견되어 한분도 낙오 없이 치료받고 완치되어 정상적 근무 및 건강하게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계시며, 하기 싫어 억지로 했지만 하나같이 건강검진 받기를 잘했다고 말씀하실 때 건진센터에 근무하는 보람을 느낍니다.

인하대병원 검진센터의 특징

인하대병원 검진센터는 2005년부터 최신설비와 시설을 갖추고 국내 최초로 대한항공과 협력하여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검진설명회를 개최한 이래 해외 교포검진을 시작하여 1년에 300명 이상 검진하고 있으며 이후 국내 유수병원을 제치고 캐나다, 중국, 몽고, 러시아 등 외국인 검진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진 고객의 나이와 건강상태에 맞추어 필요한 검진을 선택하는 평생 맞춤검진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순 종합검진에서 벗어나 최근 질병의 변화 추세에 맞추어 특화검진으로 여성정밀검진, 심장정밀검진, 폐정밀검진, 소화기정밀검진, 뇌 정밀검진 등과 더불어 5대암 및 7대암 정밀검진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 병원과 차별하여 전문 교육을 받은 전문 간호사(Health Planner)와 1:1 상담 하에 지속적으로 건강을 관리하는 평생건강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고객의 평생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자신하십니까?

건강은 누구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건강은 우리 삶의 지팡이입니다.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행복한 삶을 영위해 보십시오.

남성에게서도 늘어나는 갑상선암 이것만은 제대로 알자

최근 갑상선암 암이 증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우려로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분들도 증가하고 있다.

국내와 국외 모두 이런 현상은 관찰되어 여성에서 발생하는 암의 경우 유방암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남성에서도 갑상선암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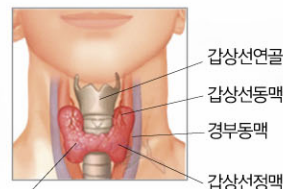
홍성빈 교수 | 내분비내과

- 전문분야 : 골다공증, 내분비, 갑상선(당뇨병)
- 진료시간 : 수·목(오전), 월·수(오후)
- 문의 : 당뇨내분비센터 ☎032-890-3360



갑상선이 무엇인가요?

갑상선질환을 치료하면서 느끼는 점은 갑상선 자체가 질환으로 생각하고 갑상선이 있다고 물어보시는 환자들이 꽤 있다. 이는 이전에는 갑상선질환이 많지 않고 질환에 대한 설명이 어려워서 정확한 진단명 없이 갑상선질환으로 설명을 들은 환자들이다. 갑상선은 정상적으로 목의 앞쪽에 위치하는 장기로 갑상선호르몬을 분비하고 있다, 나비모양으로 양 옆으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귀 밑이 부어도 갑상선질환을 의심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는 그 보다 낮게 위치하고 있으며 귀 밑이 붓는 경우에는 임파절이 커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갑상선은 정상적인 삶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며 여기에서 분비되는 갑상선호르몬이 부족하면 기운이 없고 추위를 쉽게 타며 피부가 건조하게 된다. 반대로 지나치면 체중이 감소하고 가슴이 두근거리며 땀을 많이 흘리게 된다. 갑상선 혹은 지닌 사람은 대부분 갑상선 기능은 정상으로 이런 증상이 동반되지 않는다.



갑상선

갑상선결절은?

갑상선에 결절은 모든 혹을 말하는 것으로 암과 암이 아닌 양성결절을 모두 합하여 얘기한다. 만져지거나 초음파에서 발견된 결절 10개 중 1 또는 그 이하에서 갑상선암으로 진단되고 9명은 대부분 양성결절이므로 혹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걱정할 필요는 없다.

갑상선암의 증상은?

일반적으로는 증상이 없으며 간혹 경부 불편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 크기가 큰 경우에는 음식을 삼킬 때 이물감을 느낄 수 있으며, 성대로 가는 신경과 가깝게 위치한 경우에는 목소리가 변하기도 한다.

22세 여자는 1년 전에 목에서 혹을 발견하였으나 특별한 증상이 없고 직장을 다녀서 검사를 미루다가 1-2개월 전부터 크기가 증가되어 병원을 방문하였다. 진찰 상 갑상선결절은 3 cm으로 만져졌다. 이전에는 초음파 검사 후 결절을 확인한 후 조직검사를 시행하였으나 최근에는 초음파 유도하 미세침 흡입세포검사를 처음부터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검사로 환자가 두 번 방문할 필요 없어서 검사에 드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3 cm 정도의 크기는 초음파 없이도 검사가 가능하나 동반되는 결절 유무를 확인하고 초음파 소견을 고려하여 조직검사 부위를 결정하게 된다. 이 환자의 경우는 초음파상 갑상선 우엽에 3 cm 크기의 불균질한 저에코(초음파 검사시 화면상 검게 보이는 것)를 보이며 석회화가 동반된 결절이 관찰되었다. 초음파만으로 악성과 양성결절을 100% 구별하기 쉽지 않지만 이 경우는 전형적인 갑상선암으로 생각되어 만져지는 부위에서 시행하였으며 반대편에 7 mm 크기의 결절이 동반되어 이 부위에서 검사를 같이 시행하였다. 이 검사의 경우 별도의 금식은 필요로 하지 않으며 검사 후에도 일상생활의 지장이 없다. 가는 바늘을 사용하여 검체를 얻게 되며 병리과에서 현미경으로 관찰하여 진단을 내리게 된다. 피검사를 같이 시행할 수 있으며 피검사로는 결절 유무 또는 암인지를 알수는 없으며 갑상선의 기능을 판정하게 된다.

검사 결과

결과는 양성, 악성, 의심, 부적절 등 4가지로 판정하게 된다. 의심, 부적절인 경우에는 간격을 두고 다시 검사를 하게 된다. 간혹 타병원에서 미세침 흡입세포진검사 후 방문하는 경우가 있다. 미세침 흡입세포진 검사의 정확도는 일반적으로 90-95%로 상당히 정확한 검사이다, 한 번 검사 후 곧장 재검을 하는 경우에는 검사가 정확하지 않게 되므로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갑상선암은 암도 아니라는데

갑상선암의 10년 생존율은 98.1%로 다른 암에 비하면 완치율이 높다. 비교적 조기암 상태로 발견되고 암세포의 성장과 전이가 느려 치료효과가 매우 좋기 때문이다. 3기에 수술해도 10년 생존율이 70%나 된다. 암의 성장 속도를 고려하여 10년 생존율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모든 갑상선암이 이런 성격을 보이는 것은 아니며 크기가 작아도 임파절이나 다른 장기에 전이되는 경우가 있으며 재발을 하기도 한다. 또한 치료효과가 높은 유두암이 일반적이나 미분화 갑상선암 역시 증가하고 있으며 이 경우 3-6개월의 생존기간을 보인다. 따라서 임의로 치료를 중단하고 1-2년 후에 방문하는 경우 크기가 증가하고 주변 조직으로 침범이 진행된 것을 발견하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예후가 제일 좋은 유두암이 제일 흔하며 여포암(5-10%), 수질암(5-10%), 미분화 갑상선암(1%)의 순서로 관찰된다.

치료는

양성 갑상선결절은 수술 없이 경과를 관찰하게 되며 경우에 따라 갑상선호르몬제를 복용하면서 크기의 변화를 관찰하기도 한다. 양성결절이라도 크기가 증가하면 수술로 제거를 하기도 한다. 갑상선암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갑상선 전체를 제거하므로 지속적으로 갑상선호르몬제를 복용합니다. 이후 조직검사 결과에 따라 방사선동위원소치료를 입원하여 시행한다. 갑상선암에 좋은 음식은 따로 없다. 다시마, 미역, 클로렐라 등이 갑상선에 좋은 음식으로 잘못 알려져 있으나 우리나라와 같이 요오드 섭취량이 많은 나라에서는 지나친 섭취로 인하여 오히려 질환 발생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일반적으로 김, 미역 국 같이 식사에서 섭취하는 해조류는 제한하지 않으며 해조류와 연관된 건강식품은 섭취하지 않도록 한다.

여자를 안아주는 유방성형 전문의가 되다

a breast surgery



김연수 전문의 | 성형외과

- 전문분야 : 유방재건, 미세수술, 미용
- 진료시간 : 월, 금(오전) 수(오후)
- 문의 : 성형외과 ☎032-890-3870

눈, 코 수술하는 방법이나 가르쳐주시려나?

1989년 봄, 본과 3학년이 되어 강의시간표를 받아보고 성형외과의 첫 시간이 시작되기 전 까지 나는 이런 생각을 하였다.

“성형외과의 교수님들은 들어오셔서 눈, 코 수술하는 방법이나 가르쳐 주시려나? 그런 것 배우려고 힘들여 공부해서 의과대학에 들어온 것 아닌데, 이런 과목은 좀 선택과목으로 돌려서 듣고 싶은 사람만 수강하면 안 되나?”

그런데 성형외과학을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오셔서 대한성형외과학회를 세우신 유재덕 교수님의 첫 수업을 들으면서 나의 예상은 전혀 빗나갔고 -아무리 기다려도 어떤 교수님도 눈, 코 수술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지는 않았다. 2-3 주가 지나자 1주일에 딱 한 시간, 딱 한 학기의 수요일 셋째 시간의 성형외과 수업을 매주 기다리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성형외과 의사가 될 거라고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목표를 정했다. 성형외과는 내가 생각하던 대로 미용수술만 하는 과가 아니라 인체의 모든 부위를 다루는 과라는 것과 그에 따르는 학문적인 깊이도 꽤 있구나하는 점도 나를 놀라게 했지만, 특히 나를 들뜨게 한 것은 수업마다 바뀌어 들어오시는 여러 교수님들의 수술 전후의 사진을 양쪽으로 배치한 강의 슬라이드였다. 슬라이드 한 장 한 장이 넘어갈 때마다 수술 전후의 사진이 극명하게 비교되어 학생들의 “와~” 하는 탄성이 교실을 울렸다. 내가 성형외과 레지던트가 되어 슬라이드를 돌리러 교수님을 따라서 의대생들의 수업에 들어갔을 때에는, 학생들의 수업이 끝날 때까지 계속되는 탄성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속으로 ‘그래, 수술 전 사진에서 후 사진으로 저렇게 바뀔 때까지 우리가 얼마나 밤을 새고, 혼나고, 욕먹고, 벌 당직을 서고, 고생을 지지도 많이 했는지 너희는 모를 거다. 많이 좋아해라.’ 하고 중얼거렸다.

나를 성형외과 레지던트로 뽑아 주시고 4년간 수련시켜 주신 신촌 세브란스의 당시 성형외과 과장님이신 신극선 교수님은 전문 분야가 유방을 포함한 미용성형이셨는데, 4년차가 되어 신극선 교수님의 환자를 담당하는 chief 레지던트로 있는 3개월 동안 유난히도 유방재건과 유방 성형 환자가 많이 왔었다. 오죽하면 과장님께서 다 “닥터 김이 오니까 유방 환자가 유난히 많이 와서 좋네. 유방 수술도 꽤 종류가 많지?” 하셨을까.

오래 기억에 남는 환자들

그 많던 환자들 중에 오래 기억에 남는 경우가 있다.

젖꼭지에서 진물이 나서 병원을 찾아왔는데 조직검사 결과가 파제트병 (Paget's disease)로 나와 유방암의 치료에 준해서 치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유방 절제술을 받아야만 했던 30세 초반의 젊은 새댁,,, 이 분은 정말 처녀처럼 예쁘고 몸매도 고왔는데 한 쪽 유방을 잘라내야 하다니, 그 해에 28세의 처녀였던 나도 남의 일 같지 않게 마음이 저렸고, 그래도 광배근 근피판과 유방 삽입물로 재건 수술을 받으신 후에 결과가 무척 좋아서 환자분을 치



료해 드리면서 불행 중 다행이라고 흐뭇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 분은 수술 후에 치료를 해 드릴 때마다 항상 남편 분이 옆에서 계셨는데, 환자분만 고마워하신 게 아니라 나중에는 남편분이 항수까지 내게 선물해 주셨다. 그 분은 자기 아내를 치료해주는 의사가 남자가 아니라 여자인 것을 참 다행이라고 여기시는 것 같았다. 나는 항수를 싫어해서 쓰지는 않지만, 그 고마운 마음이야 전부 내 마음 속에 담았다.

40세 후반의 주부셨던 한 환자분이 입원하셔서 환자 파악과 수술 디자인을 해보기 위해서 병실로 방문하여 과거력을 여쭙보니 약 7년 전에 유방암으로 유방 절제술을 받으신 후에 자녀들을 키우고 공부 시키느라 생활이 빠듯하여 염두를 못 내시다가, 이제 막내를 대학에 입학시키고 한 숨 돌리셔서 재건 수술 받으실 여유가 생기셨다고 말씀하셨다. 이 분은 아랫배의 복직근피판을 이용해서 유방 재건술을 받으셨었다. 수술이 끝난 후에 입원실로 찾아가 매일 치료를 해드렸는데, 퇴원하실 무렵 “선생님이 여자분이어서 너무 마음이 편안했어요. 남자의사에게 내 가슴 보이기 너무 싫거든요. 정말 고맙습니다.”하는 말씀에 나도 눈시울이 뜨거워졌고, 아직까지도 너무나 소중한 기억으로 간직하고 있다.

의외의 수술결과에 주고받는 미소

또 기억나는 분은 40대 중반의 주부신데, 오래 전에 뒷거래로(속칭 아메) 공업용 실리콘을 유방에 주사해서 유방 전체가 딱딱해졌을 뿐 아니라 유방의 피부까지 침범되어 빨갛고, 군데 군데 움푹파인, 정말 엉망이 된 유방을 해결하려고 입원하신 분이셨다. 유방의 피부만을 얇게 남기고 실리콘으로 범벅이 된 유방의 실질조직을 다 들어내는 피하 유방 절제술을 시행하고 나서, 과장님은 그 빨갛고 움푹 파인 유방 피부판의 경과가 과연 어떻게 될지 몰라서 입원을 시키시면서 지켜보셨다. 처음엔 피하 유방절제술의 경과가 괜찮으면 퇴원하셨다가 나중에 유방 재건을 하려고 하셨는데, 의외로 유방 피부판의 상태가 괜찮은 것 같다고 하시면서 2주만에 생리 식염수로 된 유방 삽입물을 넣어 유방 재건술을 시행하셨다. 그로부터 1주일이나 경과가 안정이 되어 퇴원하셔도 좋겠다고 환자분께 말씀하시고 입원실을 나오시면서, 내게 “참 수술 결과는 알다가도 모르겠어. 처음에 그렇게 상태가 안 좋았는데, 그 유방 피부판 얇게 남긴 것이 저렇게 뜻밖에도 유방 삽입물을 잘 지탱해줘서 결과가 저 정도로 좋으니 말야.”라고 말씀하셔서 서로 미소를 주고 받는 기억이 생생하다. 나는 치료만 해드렸을 뿐이지만 주치의셨던 과장님은 그 동안 이분의 경과를 지켜보시면서 많이 마음을 쓰셨던 거구나, 하는 생각을 그 말씀을 들으며 비로소 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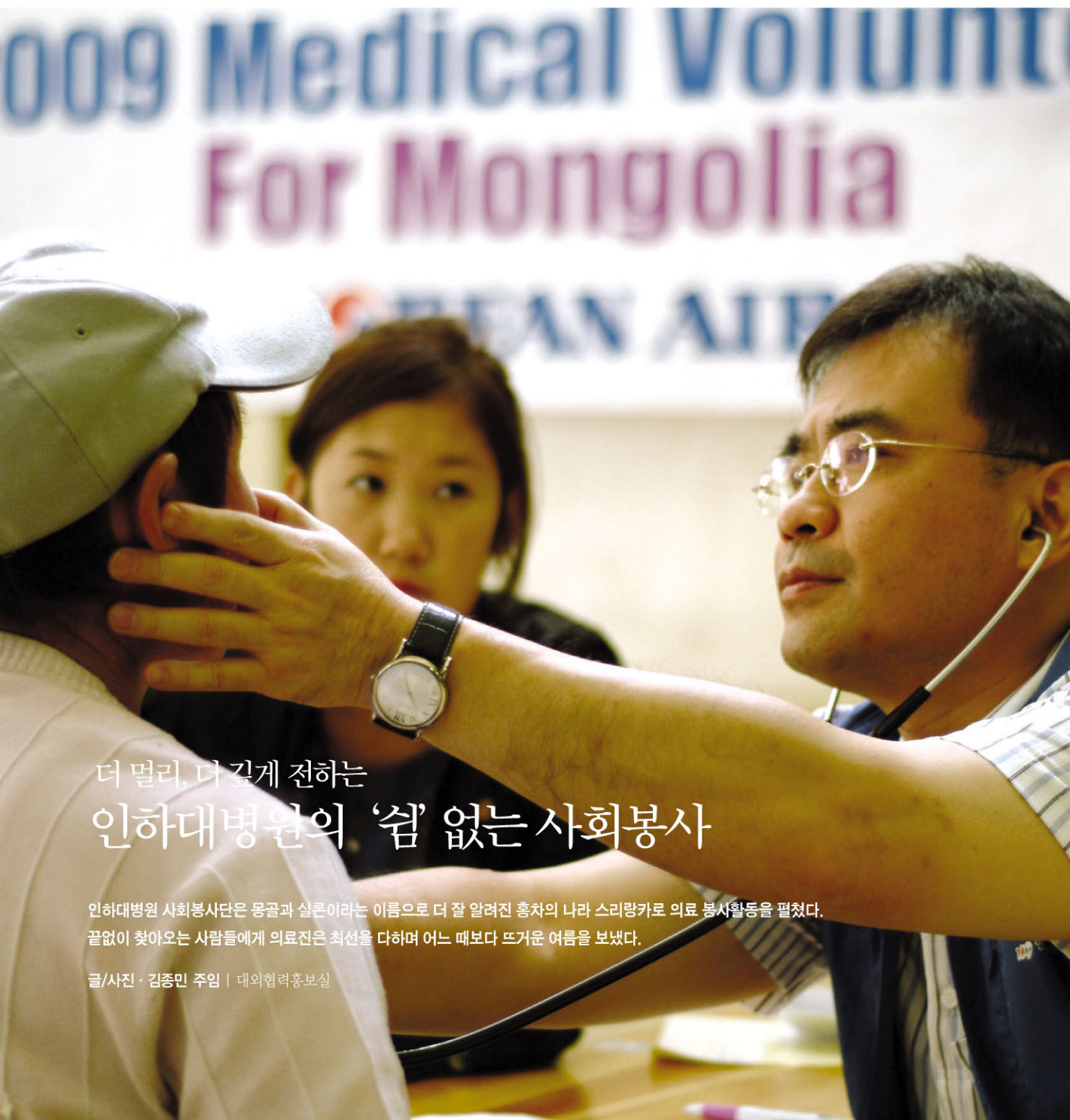
대학원생이었던 한 환자분은 키도 크고 얼굴도 반듯하며 지적으로 생겼는데, 한쪽의 유방이 선천적으로 자라지 않아서 크고 탐스러운 반대쪽의 정상 유방과 너무 많은 차이가 났었다. 그 나이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었을까? 더구나 몇 년 전에 한번 다른 곳에서 수술을 했었는데 실패해서 긴 흉터가 유방에 남겨져 있었다. 한꺼번에 유방 삽입물로 재건을 하기에는 피부와 연조직이 너무 많이 모자라서 1차로 조직 확장기를 넣어서 유방의 피부와 대흉근 등의 연조직을 늘려주고, 2차로 유방 삽입물로 대체해 주는 유방 재건 수술을 시행하였다. 더군다나 이분은 25세의 처녀였으니, 너무나도 당연히 여자의사인 나를 좋아해 주었다.

그 외에, 과거에 조악한 실리콘 보형물을 넣었다가 누수가 되고 유방이 많이 처져서 실리콘 보형물을 제거해 내고 유방 하수 교정술을 시행한 환자분, 유방이 너무 크고 처져서 유방 축소수술을 결혼 전에 받으려고 오셨던 분, 반대로 너무 유방이 작아서 유방확대수술을 받으셨던 분, 함몰유두 수술을 받으려 오셨던 환자 분들, 젖꼭지가 너무 커서 유두 축소 수술을 받으셨던 분,,, 정말 그 때에 신극선 과장님 아래에서 chief 로 있으면서 수련 받은 3개월 동안의 경험을 돌아다보니, 과장님 말씀대로 유방 수술의 종류가 열 손가락으로 세기에는 모자란 것 같다.

여자 의사라서 너무 다행 ~

그 3개월 동안 인연으로 만났던 환자분들의 한결같은 고마운 말씀들 “여자 의사라서 너무 다행이에요.”,,, 그 분들의 고마운 마음과 성원에 힘입어 ‘나도 내년에 성형외과 전문의가 되면 우리 과장님처럼 유방 성형을 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고, 전문의가 된 그 다음 해엔 과장님께서 서울 삼성병원에서 전임의로 수련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셔서 유방 환자를 많이 경험해 볼 수 있게 되었다.

나를 성형외과 레지던트로 뽑아주셔서, 수련 과정에서도 그렇게 아껴주셨고, 지금은 이렇게 대학 병원에서 유방 성형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나의 은사하신 신극선 교수님을 얼마 전 뵈었을 때, 한 길만을 열심히 걸어오신 자신의 인생을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었다. 나도 선생님 연세만큼 되었을 때에 내 스스로 저만큼 뿌듯하고 만족스러웠다고 내 인생길을 되돌아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더 멀리, 더 깊게 전하는 인하대병원의 '쉽' 없는 사회봉사

인하대병원 사회봉사단은 몽골과 실론이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홍채의 나라 스리랑카로 의료 봉사활동을 펼쳤다.
끝없이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의료진은 최선을 다하며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여름을 보냈다.

글/사진 · 김종민 주임 | 대외협력홍보실



무언가를 주고, 잔잔함을 얻어오는 몽골 의료봉사 M o n g o l i a

인하대병원 사회봉사단은 2004년부터 매년 몽골로 의료봉사를 간다. 나는 의료봉사 담당으로써 지난 2년간 매년 몽골 의료봉사를 준비해 20여 명씩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청년회의소 후원으로 실시한 몽골의료봉사, 이번엔 꼭 가보고 싶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기회가 왔다. ‘드넓은 초원에 강한 모래바람, 영하 35도의 추위, 등 어려운 자연 환경’을 상상하며 몽골에 도착했다.

물론 8월 중순의 몽골 날씨는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가을 날씨로 화창했다. 푸른 초원과 시원한 바람, 비가오지 않는 나라에 의료봉사 시작한 점심에 가벼운 소나기가 왔고, 흔히 다니는 나라가 아닌 몽골이라는 낯설지만 친근한 나라에 대한 가벼운 흥분으로 청년회의소 관계자들과 최선의 진료를 했다. 의료캠프를 차린 울란바타르 항울구 국제학교는 우리 의료진이 도착하기 전부터 솔롱고스(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의료진이 온다는 것을 알고 200여 명이 줄을 서있었다. 심지어 새치기를 했다며 가벼운 싸움까지 있었다. 번호표를 나누어 주어 오전 진료와 오후 진료를 나누 혼란을 정리 하고 진료를 시작했다.

숙소와 진료소는 버스로 30분 정도 가야 한다. 창밖의 넓은 초원은 말 그대로 진짜 초원이다. 나지막한 언덕을 넘으면 다시 펼쳐지는 초원 역시 “초원의 나라”다. 마지막 진료를 끝낸 후 숙소 근처 아주 작은 카페에서 맥주 한 잔씩 하며 봉사활동에 대한 이런 저런 얘기를 하고, 동네 슈퍼에서 체코산 초콜릿을 사고, 한국에서 5년간 살다 왔다는 사람을 만나 집으로 초대 받아 어떻게 사는지 구경도 하고, 늦은 시간 숙소까지 배웅 해주는 가족들, 몽골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과 달리 ‘무지개의 나라’, ‘어머니의 나라’라며 한국인을 좋아한다.

요즘 인하대병원에는 몽골 환자들이 자주 온다. 매년 의료봉사 때 느끼는 점이지만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주기위해 간다. 언제나 돌아오는 길에 그들로부터 알 수 없는 잔잔한 무언가를 받아온다.



욕심 없고 여유 있는 스리랑카, 민간의료는 ‘그림의 떡’ S r i L a n k a

스리랑카는 실론이라는 이름으로 더 알려진 ‘홍차의 나라’다. 요즘은 T.V광고를 보면 T.O.P라고 하면서 커피 광고를 하고 있는데 홍차에도 T.O.P가 있다. 차나무의 새순만 따서 볶고, 숙성시켜 만든 것으로 향과 맛이 깊고 부드러우며, 그윽한 여운을 남긴다. 적도 지방의 풍부한 일조량으로 먹을거리가 풍부하고, 사람들이 욕심 없고, 여유 있어 보였다.

그러나 극심한 빈부의 격차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짧은 기간이지만 ‘최고의 의술과 최고의 의약품으로 봉사 한다.’는 자부심이 있었다. 2008년 네팔과 이스라엘 지역은 온통 홍차 밭으로 다른 곡식은 없는 곳 이었는데 2009년 함반토타는 온통 쌀농사를 하는 지역이다. 섭씨 35도~37도의 뜨거운 기온과 높은 습도로 의료봉사를 위해 찾아간 우리들에게는 견디기 힘든 환경이었다. 끝없이 찾아오는 사람들은 의료캠프 진행요원 안내에 따라 오랜 시간 질서를 지키며 기다려 주었고, 의료진은 최선을 다해 진료했다.

태평양과 인도양이 만나는 함반토타 지역 해변은 2004년 12월 엄청난 규모의 쓰나미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곳이다. 당시 전 세계의 구호와 원조로 지금은 새롭게 만들어져 가고 있다. 신 항만 공사와 신 공항 공사가 예정 이라 다른 지역에 비해 도로가 잘 정비되어있는 곳이다. ‘이런 곳에서 무슨 의료봉사를 할까?’ 하는 생각은 잠시 후 이곳의 현실을 알고 나면서 이해되었다. 스리랑카 의료는 공공의료와 민간의료체계로 구분되어있다. 공공의료는 전액 무료진료 무료투약이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진료순서가 오지 않고, 다음날 다시 줄을 서도 마찬가지, 진료순서가 오지 않는 현실이다. 민간의료는 진료 접수비만 한화로 약 15,000원, 투약 까지 하면 35,000원 정도 필요하다고 한다. 일반 근로자의 월급이 약 100,000원 정도 하니 민간의료는 ‘그림의 떡’인 것이다. 아름다운 해변과 욕심 없고 여유 있는 국민성을 가진 스리랑카. 짧은 기간의 봉사였지만 그들에게 한국과 인हा대병원 이 고마운 이름으로 기억되길 바라며 맑은 눈망울의 스리랑카 소년의 작별 인사에 피로를 잊는다.

두 눈으로 살피고, 가슴으로 느끼며 머리로 생각하는 그런 삶을,,,,,,

글 · 문희원 | 건양대학교 병원관리학과

여름방학을 좀 더 뜻있게 보내기 위해 시작한 병원봉사였다.

취업을 하기 전에 미리 환자들이나 병원 환경을 체험함으로써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병원에 들어와서 처음 환자와 대면했던 일은 바로 입원간호서비스 센터였다. 환자들이 입원을 하기위해 기본적인 신장과 몸무게, 혈압 등을 체크하는 곳으로 치료가 아닌 측면에서 환자들을 직접적으로 대면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다. 물론 심신이 약해지기 때문에 쉽게 짜증을 내거나 긴 대기 열을 거부하는 환자들이 많았다. 이런 환자분들을 자주 대면하시는 자원봉사자와 간호사들은 자연스럽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셨지만 병원봉사가 처음인 나는 처음 며칠 동안은 애를 먹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1주일 정도 직접 환자들에게 번호표도 나눠드리고, 신장과 몸무게 측정을 도와드리면서 환자들을 대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교감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일반적으로 행하는 봉사는 환자들에게 편안함과 행복보다는 불편함을 줄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어떤 측면에서 보자면 입원간호센터와 접수처야말로 환자들을 먼저 접하고 환자들이 병원에 대한 인식을 가장 먼저 형성하는 곳이라고 생각한다. 그 곳에서의 봉사는 앞으로 병원이나 그 외의 곳에 취업을 하더라도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상대를 파악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다.

또한 봉사기간 중에 고등학생 자원봉사자들을 관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이 기간에는 그동안 접하지 못했던 다른 장소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 특히 ICU(집중치료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었는데, 처음에는 집중치료실에서 봉사하기를 꺼려하고 무서워하는 경향이 많았다. 하지만 며칠 동안 집중치료실에서 봉사활동을 한 학생들의 모습은 처음과 사뭇 달랐다. 관리를 하지 않으면 위태로운 중환자들을 직접 치료하진 않지만 그 옆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오히려 일반 병동이나 외래보다 환자들이 느끼는 고통을 느낄 수 있었고, 자신의 건강에 대한 감사함 역시 느낄 수 있었다고 한다. 방학 중에 시간을 내서 봉사활동을 하는 고등학생들에게 병원은 단순한 봉사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무엇인가 배울 수 있는 배움의 장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나 역시 봉사를 시작하기 전엔 병원에서 하는 봉사이니만큼 처음에는 내 몸과 건강에 대해서 감사함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오히려 반대로 내 자신에 대한 반성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 환자들과는 다르게 몸이 편한 상태에서 너무 나태한 생활을 한 것은 아닌가, 무엇인가 목표를 위해 최선을 다 한 것이 있는가.

이제 건강한 두 다리로는 내 목표를 찾아 걸어가고, 두 팔로는 그 목표를 위해 노력하며, 두 눈으로 살피고, 가슴으로 느끼며, 머리로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해본다.

이 업무를 시작한지 3개월쯤 되었던 것 같다.

‘쿵쿵쿵’

늦은 오후 누군가 문이 부서질 듯 노크를 한다. 오늘 따라 다른 팀원들이 용무 때문에 모두 외출을 하고 있는 터라 덜컥 겁이 났다.

들어오시라는 말을 하기도 전에 중년의 아주머님 한분이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온다. 힘껏 상기된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 엄청난 불만을 가지고 오신 듯하다.

“안녕하세요. 어떤 일 때문에...” 내가 용건을 묻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주머님이 큰소리로 “제발 내 얘기 좀 들어줘요” 라고 얘기하며 이내 울음을 터트린다.

1, 2분쯤 지났을까? 마침내 울음을 그치신 아주머님이 너무나 당황스러워 어찌할 비를 모르고 있는 나를 뻔히 쳐다본다.

그리고는 크게 한숨을 들이쉬고는 우리 부서를 찾아오게 된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단 1초라도 고객입장 생각하는

마음을 담은 관심은 고객 감동의 멀지 않은 길

글 · 이우진 대리 | CS팀

병원 이용하시면서 불만을 갖게 된 고객들과 대화를 시작한 지도 벌써 1년하고도 6개월이 지났다.

이제는 몇 마디만 나눠도 고객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찾을 수 있을 만큼의

경지(?)에 올랐지만 사실 그 해답은 처음부터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니었던 것 같다.



내용은 그리 수다스럽지도 복잡하지도 않았다.

머칠 동안 통증이 심해서 개인병원에 들렀더니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해서 인하대병원을 찾아왔다는 것이다. 우리 병원에서도 MRI검사를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촬영되었는지 보여주지도 않고 검사 상에 아무이상도 없다는 말 한마디로 진료를 마치며 약 처방 조차도 해주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었는데 환자가 많아서인지 매우 바빠 보여 물어 보지도 못하고 나왔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진료실을 나와서 간호사에게도 물으니 진료적인 부분은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만 얘기를 들어야 한다며 오랫동안 얘기를 들어주려고 하지 않아 결국 비싼 돈 들여 검사를 했는데 아무 소득도 없어 답답한 마음에 여기까지 찾아왔다는 것이었다.

아주머님께서 얘기하는 동안 마땅히 대꾸할 말이 생각나지 않아 고개를 끄덕이며 상대방을 주시했다. 머칠 동안의 통증 때문인지 아니면 걱정 때문인지 심신이 이미 많이 쇠약해져 있는 것처럼 보였다. 마침내 얘기를 마친 아주머님은 여기서라도 실컷 얘기하고 나니 기분이 한결 나아졌다며 별다른 대화도 응해주지 못한 나에게 미안하다는 사과와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사무실을 빠져 나갔다. 아주머님이 나가신 후 진료과에 내용을 확인하니 아무 증상이 없으신 분이신데 건강에 대해 걱정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셨다는 것이었다.

정확한 살펴보았을 때 진료 과정 중에 아주머님께 잘못된 부분을 찾기로 쉽지 않다.

하지만 그 무엇이 그분이 그렇게 통곡하게 했을까?

아무런 증상도 없었지만 아주머님께서는 아마도 따뜻한 말 한마디가 듣고 싶었을 것이다.

“MRI 사진을 보니 다른 건강하신 분들보다도 더 아주 깨끗하네요.”, “병은 걱정이 키우는 거니까 마음 편하게 잡수시면 건강하게 오래 사실 거예요.”

초입에 잠시 언급했던 ‘고객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은 그 크기와 상관 없는 마음을 담은 관심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오랜 기간을 경험하고 찾은 해답이 정말이지 너무도 싱겁고 식상하기만 하다. 하지만 나는 실제로 많은 효과를 몸소 체험했으며 그 증거를 하루에도 몇 번씩 접하고 있다.

증거라는 것은 다름 아닌 고객들이 남기신 칭찬 메시지다.

우리 부서에는 매월 100건이 넘는 칭찬 엽서가 접수된다.

고객들이 남긴 칭찬 엽서 내용은 우리들의 생각처럼 감동적인 일화가 담겨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 대신 많은 지면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괜찮을 거라는 그리고 잘 될 거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와 자신을 바라보며 짓는 따뜻한 미소’이다.

우리들은 너무도 분주하며 비슷한 일상을 경험하며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 하지만 병원을 찾은 고객들은 힘들고 쇠약해져 있으며 간절함을 담고 있을 것이며 관심을 바라고 있을 것이다.

고객을 대하기전 단 1초만이라도 고객의 입장에 서서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작은 관심을 보인다면 고객 감동의 길은 그리 먼 곳에 있는 것은 아닐 듯싶다.

마음을 담은 관심 하나면 그걸로 충분하다.

Prologue



여름이 끝나가는 8월 마지막 날,
행복해지고 싶어 지리산에 스며들었다.

* 동행 : 강재승 교수님, 김창호 기사장님, 김봉수 선생님 그리고 나

* 일정 : 첫째날(8.27일) _ 밤 10시50분 영등포역 출발

둘째날(8.28일) _ 새벽3시30분에 구례구역 도착 - 성삼재 - 노고단(아침) - 노루목 - 삼도봉 - 토끼봉 -
명성봉 - 연하천대피소(점심) - 삼각봉 - 형제봉 - 벽소령대피소(저녁&취침)

셋째날(8.29일) _ 벽소령대피소(아침) - 덕평봉 - 칠선봉 - 영신봉 - 세석대피소(점심) -
쫓대봉 - 연하봉 - 장터목대피소(저녁&취침)

넷째날(8.30일) _ 장터목대피소(새벽3시30분 출발) - 제석봉 - 통천문 - 천왕봉 - 법계사 -
로터리대피소 - 망바위 - 칼바위 - 중산리 - 진주

내 생애 첫 지리산 종주기

글 · 김시현 과장 | 인사교육팀

Episode 1 회상

어느 날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지리산 종주. 한번 해 보죠 뭐~”라고 말하고 부터는 산을 내려오던 그 시간까지가 마치 몽롱하게 선 잠을 자고 난 듯하다. 서울을 떠나던 날 하루 종일 울렁증이 일어 어지러웠다. 나 자신을 믿을 수가 없었고, 나를 아는 사람들은 떠나는 날까지도 가지 말라고 말했다. 그들의 걱정을 뒤로하고 밤기차에 몸을 실었다. 밤기차는 속도감이 없다. 가도가도 어둠 속 그 자리다.

Episode 2 이제 들어가면 나오지 못한다

새벽 4시 드디어 지리산 종주의 시작인 성삼재에 도착했다. 등산화 끈을 조이고, 헤드랜턴의 불빛을 따라 어둠에 나를 맡긴다. 안개와 어둠, 그리고 이슬비까지 뒤섞인 길에서 내 거친 호흡은 차라리 소음에 가깝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희뿌연 어스름에 두려움이 몰려온다. 조금, 정말 조금밖에 올라가지 않았는데 벌써 다리는 천근만근이다.

아~ 나의 저질체력이여... 한 시간 넘게 걸어 노고단 대피소에 도착했다. 그리곤 거의 실신한 사람처럼 긴 나무의자에 드러누웠다. 그사이 동행한 분들은 아침을 준비하고 나를 일으켜 세웠다. 미안한 마음 보다는 나의 무모한 도전이 후회스러웠다. 이제 시작인데 남은 시간이 공포로 다가온다.

Episode 3 행여 건달만하다면 제발 오지 마시라

지리산 종주 길은 온통 돌밭이다.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왔던 길 되돌릴 수 없어 그저 걷고 또 걸었다. 나의 저질 체력 탓에 예정 시간보다 한 시간은 늦게 연하천대피소에 도착했다. 일행들에게 미안했다. 그래도 난 뻔뻔하게 햇빛을 피해 드러눕고 말았다. 차려주는 밥상에도 젓가락이 가지 않을 만큼 내 몸은 지쳐버렸다. ‘그대는 나날이 번덕스럽지만 지리산은 변하면서도 언제나 첫 마음이니 행여 건달만하다면 제발 오지 마시라.’

산행에서 처음 만난 사람들과도 스스럼없이 함께 모여 즐거운 저녁식사를 하고, 첫날밤을 맞는 신부처럼 수줍게 지리산의 품속에서 첫 밤을 보냈다.

Episode 4 내 생애 처음 코피 흘린 날

“어~ 코피났것 같은데.” 아침을 차리고 누군가 나를 불렀다. 부스스 일어나 밖으로 나가니 코피가 났다고 일행들이 웃었다. 내 생애 첫 코피다. 나도 웃었다. 종주 둘째 날을 시작하면서 내 몸은 이미 마음과 따로 놓고 있었다. 따가운 햇빛과 바람 한 점이 아쉬운 더위, 그리고 오르고 올라도 끝나지 않는 돌길. 죽을 만큼 힘이 들었다. 아~ 이 몸살 저질 체력. 부끄러움도 없이 등산로 한가운데 젖은 휴지처럼 드러누웠다. 사람들이 밟고 가도 상관없었다. 난 아무렇게나 버려진 휴지 조각인 것을... 일행들이 제발 날 버려 주기를 기도 했다. 이미 앞서 간 일행에게 전화하는 김창호 선생님의 목소리가 아스라히 들렸다. “세석에서 하산해야 할 것 같아. 이 상태로 더 가는 것은 무리야.” 정신이 돌아 왔다. 지금 내가 뭐하고 있는 거지? 그래 다시 가는 거야~ 꿈결처럼 다시 일어나 세석대피소를 향해 걸었다. 얼마큼 걸었을까 눈앞에 드넓은 평지가 보였다. 와~ 세석대피소다!!! 그리고 난 또 다시 드러눕고 말았다. 오랜 시간을 일행은 나에게 양보하고 기다려주었다. 장터목으로 향하는 길은 참으로 고달팠다.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냥 계속 가야 한다. 일행 중 누군가 나에게 묻는다. 왜 땅만 보고 걷느냐고... 앞에 보이는 돌길은 두렵다. 차라리 이름 모를 들꽃들을 보는 게 더 즐겁다.

Episode 5 일생 동안 해가 뜨고 지는 횡수 이만육천번

장터목 대피소에서 천왕봉까지는 약 1.7km, 말이 1.7km이지, 종주의 끝 무렵이라서 더욱더 길게 느껴지지만 한다. 체력은 이미 한계를 다했는지 자꾸만 빠지고거린다. 몸은 이미 마음에서 도망간지 오래다. 내게 몸은 없다. 오직 포기하면 안 된다는 마음뿐이다. 그렇게 1시간 넘게 네발로 바위를 품고 드디어 1,915m 천왕봉에 올랐다.

‘한국인의 기상 여기서 발원되다’ 일생 동안 해가 뜨고 지는 횡수 이만육천번 중 그 하루를 천왕봉에서 보기를 기도했다. 하지만 산도 몸을 나누어 구름에게 걸을 내준 새벽이기에, 나의 바람에도 구름에게 양보한다. 내 생애 가장 높은 곳에서 맞은 아침이었다.

Episode 6 힘들 때면 기억하겠습니다

숨이 멎을듯했던 극한의 고통을 이기고 다시 일어나 걸었던 나. 그리고 꿈결처럼 나를 안아 주었던 아름다운 세상 힘들 때면 기억하겠습니다.

그 동안 들리지 않았던 바람소리, 물소리, 새소리가 내 영혼을 깨운다. 내려오면서 자꾸만 지나온 길이 그림다. 변하면서도 언제나 첫 마음인 지리산의 모든 것을 몸과 마음으로 느낀다. 그렇게 8월의 지리산을 그리움으로 품고 내 생애 첫 지리산 종주를 마감한다.

Epilogue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산을 오르기 시작했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배낭을 짊어지고 오른 것은 나였지만, 끌어주고 밀어준 것은 함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를 위해 시간을 양보하고, 등짐의 무게를 덜어주고,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 주었던 동행이 있었기에 난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생애 첫 지리산 종주에 무모한 도전장을 던진 나를 열심히 응원해 주신 세분께 이 지면을 통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난 또 다시 지리산을 꿈꾼다...’



▲사진 아랫줄 맨 왼쪽이 필자

가을비

글 · 동10병동 이은경씨의 옆지기(배우자)

바람결이 바뀌었습니다.

여름 내내 괴롭혔던 칙칙하고 끈적끈적한 공기가 아닌 습기가 가신 뽕송뽕송한 바람입니다.

피부에 와 감기는 느낌도 상쾌합니다.

8월의 마지막 주말 다락골엔 가을이 통째로 밀려들었습니다.



옥잠화 꽃이 스러지고 울금과 아콘이 소담스레 꽃을 피우며 바통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원두막에 갇혀 궁핍합니다. 아름다운 사연과 커피가 담긴 종이컵을 벗 삼아 일상의 거품을 건어내려 해도 쉽게 착잡한 기운이 가시질 않습니다. 새벽부터 일기가 고르지 못하더니 비가 반나절이 다가도록 그칠 줄을 모릅니다. 차라리 세차게 퍼 부었으면 계획했던 일들을 포기하고 일찍 짐이라도 꾸릴 텐데, 가는 비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몇 시간째 하늘만 멍하니 쳐다보고 있습니다.

“비가 와서 밭고랑에 들어가지 못 할 텐데..... 이거나 들고 가서 껌질 벗겨 말려봐요!”

비가 그치면 쪽파를 이식할 요량으로 종구를 손질하다 말고 동네소식도 들을 겸 건너간 이웃집에서 벗기다 남은 것이라며 토란대를 한 움큼 들려줍니다. 가지런히 썰어서 일부는 끓는 물에 살짝 데쳐내서 껌질을 제거하고, 일부는 그대로 껌질을 벗겨냅니다. 미끈하고 끈적끈적한 액체가 줄기에서 묻어나옵니다. 길이방향으로 두툼하게 조각을 내 임시로 만든 영성한 건조장에 서로 겹치지 않게 펼칩니다.

밑살스런 벌레들로부터 지키기 위해 한랭사를 씌워둔 배추밭을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이식을 마친 300여포기중 서너 포기는 낮은 환경에 적응을 못해 말라죽고 나머진 열추 자리를 잡았습니다. 밭에 옮겨 심은 후 띄약벌에 촉 늘어진 배추잎사귀만 눈앞에 아른거려 생사에 대한 걱정과 그리움이 지난 한주동안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잘 키워야한다는 강박증에 내몰리듯 시달렸습니다. 땅냄새를 맡고 잎사귀가 주먹만 해진 배추들이 나무랄 데 없이 예쁩니다. 코끝이 싸해지는 정체를 알 수없는 시원함이 온몸에 퍼집니다.

2주전에 씨를 뿌렸던 배무채(무+배추)와 무의 새싹은 지금까지 비슷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배무채싹이 무싹보다 잎사귀의 길이는 더 짧아 보이고 폭은 넓은 모습입니다. 조심스레 한랭사를 벗겨내고 금세 훌쩍 커버린 잡초들의 머리채를 잡고 사정없이 끌어내 제거하고 무밭엔 한 포기씩만 남기고 속아내기를 마쳤습니다. 호미로 흙을 북북 긁어 복주기를 해야 하는데 내린 비 탓에 호미에 흙이 달라붙어 일이 더딥니다. 새벽부터 내리던 비가 저녁나절 새참시간이 다가왔는데도 갇혀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부슬부슬 내리는 가을비가 부글부글 속을 끓게 합니다. 자신만의 휴식을 누리겠다며 다락골 오는 길을 마다해버린 옆지기가 야속하기도 합니다. 비가 내리는 중에 고추밭에 쪼그리고 앉아 고추를 따는 색다른 경험을 추가합니다. 쉼 없이 내리는 비와 잎사귀가 머금은 빗물까지 한껏 뒤집어썼습니다. 붉게 물든 홍고추만을 대상으로 조금이라도 푸른 기가 있을까 이리저리 돌려 살펴보고 손으로 매만져 부드럽게 숨이 죽은 고추들만 골라 바구니를 채웁니다.

차라리 보지 않았으면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올 고추농사 중 가장 많은 고추를 거둬들였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움보다 쓸쓸함이 기쁨보다 아쉬움이 많았던 하루였습니다. 배추밭에 물주기 수고는 덜었습니다만 밭째기를 가득 채운 작물들은 아직도 강한 햇볕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알갭기만 한 가을비였습니다.

이은경씨가족은 주말마다 인천에서 당진 다락골까지 200km를 오고가며 4년째 주말농사를 일구고 있습니다.

엄마는 소파에서 TV보면서,,,,,,

정말로 당신의 자녀를 사랑하신다면... *^^*

글 · 최석인 운동처방사 | 비만센터

“엄마는 소파에 누워서 TV보면서... 왜 제겐 러닝머신에서 운동하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친구들이랑 주말에 농구 게임 하고 싶은데, 운동은 대학가서 하라며 공부만 하래요”-.-

“키 커야 한다며 무조건 줄넘기만 하래요. 발바닥 아프고 재미도 없어서 하기 싫은데...”

위의 대화들은 소아 · 청소년기의 환자들에게서 쉽게 들을 수 있는 내용이다. 성인들도 힘들거나 재미없으면 안 하는 운동을 당신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억지로 시킨다거나, 또는 공부해야 한다는 명목 하에 자녀의 체육활동시간을 뺏고 있는 부모님들이 계신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똑바로 앉는 아이는 10%미만

처음 운동처방실에 와서 의자에 똑바로 앉는 아이들은 전체 환자의 10% 미만이다.

거의 대부분은 지하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TV광고의 한 장면처럼 다리 집게-.-가 필요한 성인남자들처럼 앉는다. 똑바로 앉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정확한 방법을 알려주고 난 후에도 3분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벌 서는 기분이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 차라리 운동장에서 1시간 뛰는 게 더 쉽다고 말하는 아이들이 있을 정도니 말이다.

자세가 나쁘다는 건 단순히 보기 싫은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부와 성장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끼친다. 잘못된 자세에서는 집중해서 공부할 수 없고, 또한 통증이 유발되거나 척추의 변형을 야기 시킴으로 치료를 위한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게 된다. 특히 후자의 경우 성인이 된 이후까지 여러 불편함을 재생산할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 예를 들자면 쉽게 스포츠손상을 입게 된다거나 척추질환을 겪게 되는 일들이다.

대학가면 다 살 빠진다?

과거에는 사춘기의 여자아이들이 2차 성징이 시작되며 가슴이 붓고 해지면 어깨를 구부리거나 등을 둥그렇게 말고 다니는 경우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남자아이들이 비만으로 인해 여성형 유방이 되면서 똑바로 앉거나 서지 못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접하게 된다. 이 남자아이들이 느끼는 부끄러움은 과거 여자아이들의 그것보다 훨씬 더 깊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가면 다 살 빠진다고 운동은 그 때 해도 된다고 무조건 공부만하라는 부모님의 말씀은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 것인지 부모님들께 다시 여쭙보고 싶다.

한편으로는 자녀의 흥미와 능력과 관계없이 유행에 따라 이런저런 운동을 강요함으로 이것을 통해 느낄 수 있는 성취감과 스트레스 해소 등의 긍정적 효과를 경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 또한 문제가 된다. 어려서 선수생활(엘리트 체육)을 했던 아이들이 운동을 접은 후에 쉽게 다른 운동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성장을 위한다며 무조건 특정 스포츠를 반복하는 것보다, 자유롭게 여러 스포츠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대학시절 유아체능단 보조교사로 있을 때 담당선생님의 말씀이 생각난다.

“꼬부랑 할머니가 꼬부랑 고갯길을 꼬부랑 꼬부랑 걸어가고 있네”라는 동요 가사에 맞춰 체육관을 뛰던 아이들을 보며 앞으로는 꼬부랑 할머니 대신 꼬부랑 아이들이, 걸어가고 있네 대신 굴러가고 있네로 바뀔 거 같다며 걱정하시던 그 눈빛이 떠오른다.

“선생님말씀은 잘 알겠지만 학교수업 마치고 학원 다녀야 하고, 방학 동안은 더 바빠서 운동할 시간이 없어요”라고 말씀하시는 부모님들께 공부만큼...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다.

●문의 : 비만센터(032-890-3360)

자녀의 좋은 운동친구가 되고 싶다면

평가와 판단은 전문가에게 맡겨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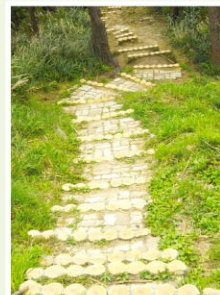
운동처방사와 엄마의 말이 서로 다를 때 아이는 혼란스러워 한다. 가끔은 아이가 평균이상의 체력과 운동수행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기대를 채우지 못한다고 자녀를 힘들게 하는 부모님을 볼 때가 있다. 그 순간 아이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흥미마저 잃게 되며 지도자의 교육을 신뢰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라.

자녀가 세운 운동의 목적을 인정해주고 지지해주라!

아이들에게 운동의 목적은 예상과 달리 다양할 수 있다. 살을 빼 언니처럼 예쁜 공주드레스를 입기 위해서, 친구들과 잘 어울리기 위해 농구를 잘하고 싶어서일 수도 있지만 어떤 아이들은 혹시 부모님에게 있는 성인병이 자신에게도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운동을 하는 아이들도 있다. 왜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됐는지 잘 들어주고, 중간과정 가운데 힘들어할 때 자녀가 스스로 했던 말들을 상기시켜준다면, 가장 긍정적이고 강력한 피드백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술선수범하므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운동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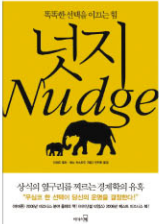
공부습관이나 식습관도 마찬가지겠지만, 운동 역시 가족 모두가 함께 하지 않으면 어린 자녀들은 정말 하기 싫은 무거운 짐 같이 느낄 수밖에 없다. 거실에서 할 수 있는 운동게임에서부터 동네 뒷산에 오르기처럼... 함께이기에 거부감 없이 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자.



인하대병원 리더들이 추천하는

마음을 꽉 채우는 찬란한 책과의 만남

이두익 의료원장



도서명: 넛지(Nudge)
지은이: 척드 H 탈러,
케스 R 섀스타인
출판사: 리더스북

우리는 우리 직장의 모든 것이 화기애매하게 절되고 발전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모두 갖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인 종종 서로 다름에 자신의 마음이 상하거나 동료의 마음을 상하게 하기도 하고, 극단적으로는 편을 갈라 또는 적으로 만들어, 속으로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책의 제목 넛지(nudge)는 '팔꿈치로 살짝 찌르다', 주의를 환기시킨다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타인의 선택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을 뜻한다. 개인이 사회에 최선이 되는 결정을 보다 쉽게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할 수 있음(선택설계학) 인생의 가장 중요한 측면에서의 생생한 사례들을 통해 보여주고 있어 부드러운 사회생활로의 지혜를 터득할 수 있을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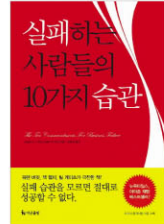
김영모 기획조정실장



도서명: CEO 안철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은이: 안철수
출판사: 김영사

손자병법에서 나오는 실패하는 장수의 다섯가지 유형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장수, 자기만 살려고 애쓰는 장수, 화를 잘 내는 장수, 청렴 결백한 장수, 백성을 사랑하는 장수가 그것이다. 다섯 가지 유형 중에 어느 한 가지에도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없다. 또한 고치려 한다고 쉽게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스스로 자신의 성격을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자신의 업무를 성격 때문에 그르치는 일이 없도록 경계해야 한다는 점이다. 저자는 유명한 의사이며, 기업인이며, 경영학자이며, 교수다. 이 책에서는 급변하는 글로벌 시대에 개인과 조직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자세와 마인드, 자질과 특히 커뮤니케이션의 방법 등을 제시 하고 있어 추천한다.

이태한 기획조정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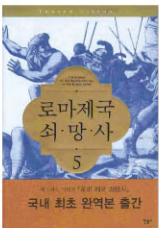


도서명: 실패하는 사람들의
10가지 습관
지은이: 도널드 R. 키오
(김원옥 옮김)
출판사: 다난출판사

IBM은 한때 대단했던 회사다. 1980년대는 IBM 세상이었다. 84년에는 660억 달러라는 엄청난 순익을 올린 사상 최초의 기업이었다. 하지만 9년 뒤인 93년 이 회사는 사상 최초로 80억 달러라는 엄청난 적자를 기록한 기업으로 전락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자만과 고집 때문이었다.

이 책은 경영상식에 관한 책이다. 세계 굴지의 기업 코카콜라를 경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이 느낀 경영관, 인생관을 편안하게 서술하였다. 경영을 소재로 했지만 앞선 세대의 인생 멘토가 들려주는 인생의 지침이 될 수도 있는 내용이다.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가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이 책의 일독을 적극 권한다.

영종매디칼 개원추진본부 김중래 부장



도서명: 로마제국 쇠망사
지은이: 에드워드 기번
역 자: 송은주 등
출판사: 민음사

900년 동안 강해지며 서구 문명의 원형으로 칭송 받고, 그 후 14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서서히 멸망해간 대제국의 역사를 로마인이 아닌 영국인의 역사가이자 작가인 에드워드 기번이 1780년대에 상당한 용기를 가지고 객관적 시각으로 바라본 '로마제국 쇠망사'는 매우 방대하여 쉽게 엄두가 나지 않는 책이지만 경영자나 간부들은 한번쯤 읽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 책에는 수많은 전쟁, 반란, 모함, 아침, 편협한 행동, 술수가 등장하는데 이를 따라가면 망한다는 티산 지식의 교훈을 보여주는 듯하다. 이민족의 침략보다 내부로부터 서서히 무너져간 로마를 가까이에서 바라보며 자신과 자기 조직은 물론 인생까지도 되짚어보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추천한다.

이한택 자재팀장



도서명: 나는 아내와의
결혼을 후회한다
지은이: 김정운
출판사: 쌤앤파커스

이 책은 제목처럼 아내와 결혼한걸 후회하는 게 주제가 아니다. 거침없이 까발려지는 저자 주변의 실생활과 친구, 동료들의 이야기가 마치 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저자의 수미 전부를 손도 안대고 아내의 통장으로 이체하는 조건으로 연애한 별5개 짜리 고급호텔에서와 같은 조명과, '하얀 침대시트'에서는 '나도 잘 할 수 있다'라는 '조작적점'의 를 이야기하며, '심층심리학적 원인'을 설명한다.

'행'으로 허둥지둥 서로 다른 이야기가 끝없이 재생산되는 골프의 스토리텔링에 폭 빠진 모습들은 바로 내 얘기 같고, 풍부하고 다양할수록 좋은 이야기가 있는 삶은 행복하기 때문이라며 '캠핑카'에 목매는 작가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모습 같아서 이 책을 추천한다.

변종범 재무팀장



도서명: 내 영혼이 따뜻했던
날들
지은이: 포리스트 카터
출판사: 아름다운미디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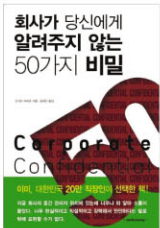
누구는 책 읽는 내내 가슴 설레며 읽었다고 하고, 또 책 읽기 이전상태로 절대로 돌아갈 수 없다고도 했다. 어떤 누구에게 추천을 해도 후회하지 않을꺼라고도 했다. 작가 사후 12년 만에 아비(ABBY)상을 수상하고, 읽은 사람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작은 고전이 된 책. 작은 나무라는 이름을 가진 5살 인디언 소년에게 빠지지 않을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도 없을 것이다.

이 가을, 마음을 꽉 채우고 싶은 분들은 꼭 이 책을 만나보시길 바란다.



Book

박해욱 인사교육팀장



도서명: 회사에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50가지 비밀
지은이: 신시아 샤피로, 공혜진 옮김,
출판사: 도서출판 서돌

이 책의 38장 '정상에 서려면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누구에게나 도움되는 글인 것 같다. 이 장의 일부인 '항상 상황의 부정적인 면보다 긍정적인 면을 보려고 노력하면 어떤 문제건 덜 위협적으로 느껴진다. 긍정적인 태도는 문제의 심각성에 압도되는 대신에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이끌어 낸다.'는 이 글귀는 정말 힘들다고 느낄 때 조금씩 해결점을 찾도록 노력하는데 용기를 준다. 우리 직원들이 인사대병원이라는 배를 함께 타고 항해하는 선원이려면, 그리고 환자들이 여행객이라 생각할 때 어떤 난관에서도 여행객이 놀라거나 겁먹지 않게 우리 직원들이 용감하게 긍정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기대된다. 우리 모두 즐거운 항해와 안전한 도착을 위해 화이팅!

김창호 핵의학과 기사장



도서명: 어쩌다 우리 사이가 이렇게 됐지
지은이: 이성호
출판사: 말글빛냄

부부 사이, 부모 자식 사이에 있을 수 있는 관계를 잘 표현한 책이다. 읽으면서 많은 반성을 하고 나도 변화하고자 노력을 하였다. '삶은 누구에게나 관계로 가득 차 있다.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았다고 한다면 그는 관계에 성공한 것이다.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에서, 이 세상의 많은 일들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저렇게 부딪친 순간의 현상과 사건, 또 조직이나 기관들과의 관계에서 성공을 거둔 것이다. 반대로 인생에서 실패했다 함은 그러한 관계지음에서 실패했음을 의미 한다. 기정이 행복하다 함은 부부관계, 부모-자식관계, 형제관계, 친인척관계에서 원만하고 성공적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본문중에서-

조의영 간호부장



도서명: 병원이 선택하는 탁월한 신입 간호사 1%
지은이: 엄영란, 임숙빈, 강소영, 박광옥, 송경자, 이선희
출판사: 현문사

이 책의 기본적인 내용은 신입 간호사가 제물을 하고 최고의 간호사가 될 수 있는 노하우를 담고 있다. 미국의 Donna Wilk Cardillo가 저술한 'Your 1st Year as a Nurse'의 구성과 아이디어를 기본으로 활용하여 작성하였으나 내용은 국내 병원에서 근무하는 현장 간호사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신입 간호사가 학생 때 배운 이론적인 내용은 현장 근무에서 적용하기에는 부족하였으므로, 다양한 실제 상황에 대한 대처와 아이디어를 제시하여 간호사들이 문제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이다.

고종욱 감사팀장



도서명: 영성중력의 세가지 법칙
지은이: 리 스몰린, 김낙우 역
출판사: 사이언스 북

나의 판단이 항상 정확할까? 내가 하나의 의견을 말할 때 그것은 어느 정도가 진실일까?
현대 사조의 중요한 배경이 된 과학이론 중 하나가 진화론 외에 불확정성 원리와 불완전성 정리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전자가 양자역학의 토대를 이루고 존재론적으로 객관적 실재에 대한 인간의 착각을 지적한 것이라면 후자는 논리적이고 수학적인 바탕을 기반으로 한 인간 이성에 대한 인식론적 한계를 지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실재와 인식에 대한 사유와 기준의 폭을 넓혔을 것이다. 그렇다! 우리 모두가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고, 타인의 의견을 무시하며, 오직 자신만이 진실이라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자신과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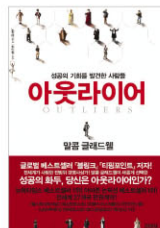
황우경 총무팀장



도서명: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
지은이: 리처드 칼슨
출판사: 창작시대

이 책은 순응이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하는 책이다. 잘못 해석하면 현실 안주로 생각할 수 있는 단어이지만 가장 강력하고 무시무시한 단어라고 생각한다. 단순하지만 강력하며, 폭넓은 전망을 갖고 느긋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단어이다. 이 책을 읽은 후에는 조금은 마음이 후련해지며 또 다른 세상이 열리는 기분일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권하고자 한다. '오늘이 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라. 그것은 분별없는 행동을 하거나 책임을 포기하는 데 대한 구실로서가 아니라, 인생이 실제로 얼마나 소중한가를 상기시켜 주는 말이기 때문이다.'라는 글귀처럼 사소한 것에 골치 썩이지 말자

채혁기 원무보험팀장



도서명: 아웃라이어(Outliers)
지은이: 말콤 글레드웰
출판사: 김영사

세계적 저널리스트인 저자가 '성공하는 상위1%의 비결'을 다양하고 독창적인 시각으로 분석한 자기개발서이다. 빌게이츠, 록펠러, 비틀스, 모짜르트, 수학을 잘하는 아시아인 등 일반적인 규칙을 넘어서 성공자들을 '아웃라이어'로 규정했다. 노력, 열정, 기질(DRA) 만으로는 아웃라이어의 성공을 설명할 수 없으며, 오히려 다양한 기회요소, 문화적 배경 등의 숨겨진 이점이 핵심 요인이라는 흥미로운 주장과 실증들을 제시하고 있다. 성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한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이다.

신종플루 예방 백신 개발 중,

타미플루는 예방접종으로 대체할 수 없어!



Q : 타미플루를 신종플루 백신 대신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A : 현재 신종플루 예방 백신을 개발 중이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예방의 1차요법은 백신요법이므로 백신접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타미플루를 사용하며 이 약은 예방접종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신종플루를 치료하는 항바이러스제로 '타미플루' 외에도 '리렌자'가 있으며 리렌자는 경구용 제제는 없고, 흡입제와 분무제 형태로 되어있습니다. 합병증 발생우려가 높은 65세 이상 노인이나 폐질환 환자, 만성심혈관질환자는 신종플루에 감염되었을 때 위의 항바이러스제를 반드시 복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약들은 부분적으로 신종플루 예방효과를 내지만 남용하면 내성을 보이는 변종 바이러스가 출현할 수 있으므로 의사와 상담 후 복용해야 합니다.

Q : 신종플루환자 중 임신부도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 리렌자) 복용이 가능한가요?

A : 임신부들의 경우에는 신종인플루엔자가 중증으로 진행할 수 있고, 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체온상승이 태아 기형이나 조산 같은 합병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신부는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등이 나타나서 의심단계가 되면, 의사와 상담후 투여시 유익성이 위험성보다 크다면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하여야 합니다.

Q : 수유중에도 항바이러스제 복용이 가능한지?

A : 현재까지는 항바이러스제 복용 중인 수유부 모유에서 항바이러스제의 대사물질이 검출되는지 밝혀지지 않았으며 일단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도 수유중에도 항바이러스제 복용이 가능하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Q : 타미플루를 처방받았는데 언제먹는 것이 좋은가요?

A : 타미플루는 음식과 상관없이 복용할 수 있으나, 음식과 함께 복용할 경우 오심과 구토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타미플루는 바이러스의 복제를 억제하기 때문에, 가능한 증상발현 48시간 이내에 투여해야하며, 더 빨리 투여할수록 좀 더 효과적이며 치료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치료목적으로 투여할 경우 아침에 1캡슐, 저녁에 1캡슐을 5일간 복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제 시간에 약을 복용하지 못한 경우 다음 예정시간과의 간격이 2시간 이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복용하여야 합니다.

● 참고문헌

<http://www.cdc.go.kr>, <http://www.kfda.go.kr>, <http://www.who.int>, <http://www.roche.com>

※ 항상 환자분들 곁에 인하대병원 약사들이 함께 합니다

※ 약에 대한 문의는 : 주간 032) 890-3323, 3327 | 야간 032) 890-3315

LIG for
Tomorrow



고객과 함께한 50년
희망의 약속 100년



LIG손해보험 50년,
고객 여러분의 사랑 덕분이었습니다
다음 100년도, 고객의 든든한 희망이 되겠습니다



희망에 투자합니다 **LIG 손해보험**

www.LIG.co.kr *주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9-11 LIG타워 *고객콜센터: 1544-0114

신속한 사고처리에 다양한 서비스까지

LIG
마지컬카

상해, 질병 등 다양한 보장을 하나로~

무배당
LIG 웰빙보험



중국 칭다오시 한인상공회와 지정병원 협약 체결

중국 인민병원내에 위치한 인하대병원 국제진료센터와 칭다오시 한인상공회가 지난 8월 4일 지정병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곳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을 대표하는 한인상공회와 지정병원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한인상공회 회원 및 가족까지 전문 코디네이터의 1:1 서비스와 한국식 투약시스템을 적용 받을 수 있게 된다. 인하대병원은 향후 중국 산둥성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 교민 및 조선족 70만 명을 대상으로 의료혜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폐암센터 국제 심포지엄 개최 성료

국내 최초로 지난 5월 26일 오픈한 인하대병원 폐암센터는 국내외 폐암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국제 심포지엄을 8월 29일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하였다.

폐암의 진단, 치료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핵심 화두로 되어있는 '조기진단', '맞춤치료' 및 '진단, 치료기술의 최근 발전상황' 등에 대하여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되었다. 일본의 폐암 조기발견사업을 주도하였던 일본 가나자와 대학의 사가와 교수와 맞춤치료의 핵심 연구 분야인 약물 유전연구에서 세계적 명망이 높은 미국 로스웰박 암센터 아제이 교수의 주제 발표가 있었고, 그 외에도 일본 큐슈대학 다카야마 교수, 토호쿠 대학의 엔도교수와 함께 인하대학병원 김우철, 류정선 교수, 서울대학병원 이현주 교수, 국립암센터 황보빈, 전재관 교수의 발표가 있었다.



'마른 당뇨병, 수술로 완치 가능' 인하대병원 외과 허윤석 교수,

당뇨병치료의 획기적 발전

인하대병원 허윤석 외과 교수팀은 2형 당뇨병을 앓고 있는 53세 교포여성(홍콩)을 대상으로 십이지장을 잘라내는 후회로 수술을 한 결과, 혈당치가 정상으로 떨어져 당뇨병이 치료된 것으로 확인했다.

허윤석 교수는 "십이지장을 잘라낸 것은 십이지장 부위의 당 흡수율이 높아 당뇨병 발생한다는 고전적 이론에다, 뒤쪽 장(腸)에 있는 세포들이 인슐린에 대한 감수성이 떨어져, 당에 저항하는 능력을 전반적으로 저하시킨다는 미국과 유럽의 최근 연구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팸투어단 본원 방문

7월 30일 중국 팸투어단이 우리병원을 방문했다. 이번 중국 팸투어단은 중국의사협회 임원단 6명(회장 인따쿠이)으로 구성되어 약 1시간의 병원 브리핑을 시작으로 사이버나이프, 하이프, PET-CT, 건강검진센터 등을 둘러보며 매우 만족해 했다.

병원장님께서는 "중국과 인하대병원은 지리적으로 타 대학병원에 비해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중국 칭다오에 국제진료센터를 운영하는 등 매우 긴밀한 협조관계에 있다"고 말하면서 "이번 팸투어를 바탕으로 환자교류는 물론 의사 연수 및 학술교류에 있어서도 발전적인 관계를 유지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인천광역시한의사회 의료협력협약 체결 ●

2009년 9월 7일 본원에서 인천광역시한의사회 (회장 임치유)와 의료협력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동서의학의 조화를 바탕으로 의료관광산업에 특화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선두입지를 굳힐 계획이다. 박승림 병원장은 “동양 및 서양 의학간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면 큰 시너지 효과를 창출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2011년 말 영종도 국제메디컬센터 개원 시 한의사를 초빙하여 특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쟁우위를 확보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국관광공사 감사패 수상 ●●

인하대병원은 8월 12일 한국관광공사로부터 한국의료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번 감사패는 인하대병원이 공사가 추진중인 국내외에서의 의료관광 상품개발에 적극적으로 협력함으로써 한국의료관광 위상제고에 크게 이바지함을 인정받아 수상하게 되었다.



주한 중국대사관으로부터 감사패 수상 ●●●

8월 28일 주한 중국대사관 평민화대사로부터 한중 양국간의 의료협력 및 우호증진에 기여한 비를 인정 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 본원은 지난 2007년부터 주한 중국대사관과 지정병원 협약을 체결하여 중국 비자 발급 시 신체검사는 물론 국내 체류중인 중국인 응급진료시 신속한 의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몽골연수의사 수료식 ●●●●

2009년 8월 18일, 몽골 여의사 소놈 나랑토야(Sonom Narantsetseg)의 인하대병원 의료연수 수료식이 열렸다. 지난 6월 1일부터 약 12주간의(8월 30일 종료예정) 연수를 마친 소놈은 우리병원의 김형길 교수, 이돈행 교수, 신용운 교수 등으로부터 교육을 받았으며 특히, 내시경 분야에 대해 집중적인 교육을 받았다. 그녀는 “인하대병원 직원들의 친절함과 밝은 미소에 감동을 받았다.”라며 “인하대병원에서 배운 선진 의료기술을 바탕으로 몽골에서 어려운 환자들을 돌볼 수 있는 유능한 의사가 되겠다.”라고 말했다.



스리랑카, 몽골 해외의료봉사 성료 -

지구촌 의료 사각지대에 선진기술 전달 ●●●●●

인하대병원 사회봉사단은 최근 3주간 스리랑카 (8/2~8/9)와 몽골(8/17~8/22) 의료봉사를 다녀오는 강행군을 펼쳤다. 스리랑카 봉사지역은 함반토타 지역으로 지난 2004년 12월 쓰나미로 인해 많은 이들이 고통 받은 곳이었으며, 짧은 기간 동안 1411명의 환자를 돌보며 따뜻한 사랑을 나눴다.





인천 작전동 주민들과 함께 한 인하대병원 영화동호회

지난 7월 31일 영화동호회(회장 방사선종양학과 김우철 교수)는 작전동 주민들을 위해 차인표 주연의 흥행영화 '크로싱'을 상영하였으며, 이에 앞서 병원소개 홍보동영상 상영과 무료 건강 진료도 실시하여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2009 세계도시축전 중앙진료소 운영 ●

본원은 2009 세계도시축전 행사기간 중 약 2주간 중앙진료소(8/4~8/16, 10/4)를 운영하였다.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하며 의사 1명과 간호사 1명, 129 구급대원들이 상시 대기하며, 세계도시축전을 방문한 전 세계 손님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돌발사고, 열사병, 탈진 등의 상황에 신속 정확하게 대처하며 응급진료를 시행하였다.



음악회 풍성 - 의대 오케스트라 '마에스트로' 공연, '양현경과 음악친구들의 찾아가는 음악회' 개최 ●●

9월 17일 오후 12시부터 병원 1층 로비에서 의대 오케스트라 '마에스트로'가 공연을 하였고, 3시부터 '양현경과 음악친구들의 찾아가는 음악회'의 찾아가는 콘서트를 개최하였다.

공부하며 틈틈히 연습한 '마에스트로'의 공연은 나른한 점심시간에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하였다. 이후 열린 콘서트는 80년대 통기타 가요들로 입원환자들의 참여가 많았고, 관객 호응도 높았다. 양현경과 음악친구들의 공연은 매달 셋째 주 목요일에 정기적으로 개최된다.



영상정보시스템 운영 ●●●

9월 7일 1층 로비와 지하 1층에 영상정보시스템을 설치 하였다. 영상정보시스템은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병원시설 위치 및 길안내, 병원 층별 안내, 외래진료시간표 안내, 환자의 진료예약상태 및 처방내용 확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2단계로 영어 등 외국어 서비스와 약물 안내기능을 추가 개발할 예정이다.



병리와 주영채교수, 대한세포병리학회 회장선임 ●●●●

2009년 5월 29일~30일 가톨릭의대 성의회관에서 개최된 대한세포병리학회 제 23차 봄학술대회에서 제 15대 학회장으로 병리와 주영채 교수가 선임되었다.



마취통증의학과 차영덕 교수,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표창장 수상 ●●●●●

인하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차영덕교수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으로부터 표창장을 수상했다.

이번 표창은 북한을 비롯한 개발도상국 등에 대한 보건의료지원 활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국제보건의료 발전에 크게 기여한 비를 인정받아 수상하게 되었다.





소화기내과 이돈행 교수, 세계인명사전 MARQUIS Who's Who 2010 및 'TOP 100 HEALTH PROFESSIONALS 2009' 동시 등재 ●

인하대병원 소화기내과 이돈행 교수가 세계 3대 인명사전 중 마르퀴즈 후즈후(Marquis Who's Who) 2010년 판과 영국제인명센터(IBC, The International Biographical Center)에서 선정하는 'TOP 100 HEALTH PROFESSIONALS 2009'에 동시 선정되는 영예를 안게 됐다. 이렇게 두 개 이상의 인명사전에 동시에 선정되는 경우는 국내에서도 드문 성과이다. 이돈행 교수는 현재 인하대학교 의과대학전문대학원 교수 및 본원 소화기내과 과장으로 재직 중이며, 2003년 7월 부터 2005년 2월까지 미국 유타 약학대학 교환교수를 역임하였고, 주연구 분야는 소화기질환(담도, 췌장분야), 약물전달시스템 및 21C 프론티어사업으로 개발된 한국형 캡슐내시경의 개발 및 임상시험분야이다.



핵의학과 김창호 기사장, 교육과학기술부장관상 수상 ●●

2009년 9월 10일 제 15회 원자력안전의 날을 맞아 인하대병원 핵의학과 김창호 기사장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김창호 기사장은 방사선동위원소 통합전신망의조기 정착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핵의학 상대가치개정을 통한 보험수가 개정작업에도 주된 역할을 하였다. 2006년 세계핵의학회 서울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이끌었고 현재 대한핵의학 기술학회 회장으로 일본과 상호 교류중이며, 핵의학전무기사제도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등 핵의학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인정받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원무보험팀 석현숙 주임, 주한 중국대사관으로 부터 공로패 수상 ●●●

8월 28일 본원 원무보험팀 석현숙 주임이 주한 중국대사관 영사부로부터 공로패를 수상하였다. 중국 대사관에서는 석현숙 주임이 주한 중국대사관과 본원과의 원활한 업무수행에 많은 공헌을 하였고, 위급한 중국인과 그 가족들을 인도주의적 정신으로 무사히 귀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노고에 대한 감사표시로 공로패를 수여하였다.



파랑새 소식

● 파랑새는 인하대병원 유방암 환우회의 이름입니다

▶ 홈페이지 www.inha.com> 여성암센터

▶ 카페 cafe.daum.net / inhabluebird ▶ 문의 여성암센터 ☎ 890-2560

여성암 센터 교육 및 유방암 환우회

♣봉평메밀축제 나들이

8월 한 달은 쉬고, 강원도 봉평 메밀축제에 맞추어 9월 9일 하얀 메밀 꽃밭으로 나들이를 다녀왔다. 오랜만에 만난 파랑새 회원들은 그 간의 근황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행사안내

- * 다음행사 : 핑크마라톤 대회
- * 일시: 10월 11일 10시
- * 장소: 상암 월드컵 경기장
- *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각 팀장님이나 여성암센터에 신청 (참가자에겐 참가티셔츠 제공)



인사동정

보직임명

소속	성명	발령사항
신경외과	현동근	적정진료관리실장
마취통증의학과	송장호	적정진료관리실장보
특수간호팀	함영주	MICU-A 간호단위책임자

신규임용

국제진료센터 소장 겸 건강증진센터 판정의	이 양	촉탁전문의
성형외과	김연수	임상강사
소화기내과	양병혁	전임의
소화기내과	임희환	전임의
핵의학과	장수진	일반의

전근

소속	성명	발령사항
병동간호2팀	정유미	외래간호팀
외래간호팀	김영숙	병동간호2팀
외래간호팀	이정아	병동간호1팀

외래간호팀	김진연	병동간호1팀
진료지원팀	임지숙	특수간호팀
임상시험센터	김설아	병동간호2팀
병동간호2팀	김은정	감염관리실
병동간호1팀	이미주	외래간호팀
특수간호팀	박세리	병동간호1팀
병동간호1팀	신재연	QI팀

채용

● 인턴사원

인사교육팀	차기훈
-------	-----

● 수습

병동간호1팀	이민혜, 이유리, 이현선
병동간호2팀	정미란, 홍선아, 박지선
특수간호팀	김성민

이달의 친절직원

8월 소화기내과	김형길
9월 시설팀	김점순

자원봉사자 모집

인하대병원에서 환자들을 위해 책임감을 갖고 자발적으로 봉사해주실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1. 자 격

- 만 60세 미만으로 주 1회(3시간) 최소한 6개월 이상 활동 가능하신 분
- 각종 교육과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
-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하신 분

2. 봉사활동시간

- 오전 : 9시 ~ 12시 / 오후 : 1시 ~ 4시

3. 봉사자에 대한 예우

- 3시간 이상 봉사 활동시 식권 지원
- 봉사당일 무료주차
- 행사 참여 : 야유회, 송년회, 간담회
- 자원봉사상해보험가입
- 의료비 감면 (6개월 이상 봉사자)
- 자녀(중고생) 인하대병원 학생자원봉사활동 참여 우선 자격 부여

봉사활동 부서별 내용

활동부서	대 상	활동내용
소아청소년과	입원, 외래환아	페이스페인팅, 풍선아트, 동화구연
외래안내	내원객	진료상담, 진료실, 검사실 위치안내, 동행안내
도서대여	입원환자, 보호자	무료도서대여, 반납, 정리
이미용 봉사	입원환자	이미용(병동방문)
호스피스	입원환자	세발, 간병, 목욕, 말벗
진료지원부서 (중앙공급실/수술실/세탁실)		진료재료 공급, 거즈나 붕대접기, 의료소모품 정리 환자가운 등 세탁물 정리

● 문의 : 지하 2층 자원봉사실 담당 - 신소영 ☎032-890-2873



Global Inha

이번에는 본원 1층에 입원간호서비스센터를 위한 대화 편입니다. 외국인 환자 입원 시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Nurse: What is your problem?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습니까?

Int'l patient: I am suffered from thyroid cancer, 갑상선암입니다.

Nurse: Has it been for a long time?

아프신 지 오래되셨나요?

Int'l patient: I don't know well, but the doctor diagnosed as thyroid cancer two weeks ago.

잘 모르겠어요, 2주전에 갑상선암으로 진단받았습니다.

Nurse: Did you ever have surgery, treatment or hospital admission?

과거에 수술, 치료, 입원하신 적이 있나요?

Int'l patient: No, 없습니다.

Nurse: I am going to check your vital signs.

OK, your blood pressure and temperature are normal.

혈압과 맥박, 체온을 측정하겠습니다.

혈압과 체온 모두 정상입니다.

Nurse: Are you taking any medicine on a regular basis?

주기적으로 드시는 약이 있습니까?

Int'l patient: Not at all, 전혀 없습니다.

Nurse: Do you have anyone in your family who had suffered, or is suffering from hypertension, tuberculosis, cancer or diabetes?

가족 중에 고혈압, 결핵 또는 당뇨를 현재 앓고 있거나 앓은 적이 있습니까?

Int'l patient: My mother has hypertension, 어머니가 고혈압이 있습니다.

Nurse: The nurse in charge will explain to you about the admission in detail. Please go to your designated patient room.

입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담당간호사께서 하실 것이고 지정된 병실로 가시면 됩니다.

Int'l patient: OK,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Nurse: I wish you a fast recovery. 빠른 쾌유를 빕니다.



원 | 고 | 모 | 집

원보 인하대병원에는 여러분의 글을 기다립니다. 글 재주가 없다고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활 주변의 잔잔한 이야기나 자신의 심정을 솔직하게 적은 글은 읽는 이에게 큰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펜을 들어보십시오.

■ E-mail : inhapr@inha.com

■ 보낼 곳 : 대외협력홍보실

☎ 032-890-2603

편집위원

김명석
이지현, 김필림 | 대외협력홍보실
우진희 | 간호부
강순자 | 원무부협력팀

독 자 엽 서

보 내 는 사 람

□□□-□□□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 부담

발송 유효 기간
2008. 07. 09 ~ 2010. 07. 08

인천 우체국
제40050호

받는 사람



인하대병원
www.inha.com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 3가 7-206
인하대병원 대외협력홍보실
원보편집실 앞

4 0 0 - 7 1 1

퀴즈 퀴즈 제50회

※ 당첨자는 다음호에 게재됩니다.



퀴즈 정답과 의견을 독자엽서에 작성하시어, 원내 고객의 소리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병원 홈페이지(www.inha.com)를 참고하시고 인터넷으로 응모하시면 더욱 편리합니다.

※당첨된 분들께는
소정의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1

갑상선암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 ① 갑상선 혹을 지닌 사람은 대부분 갑상선 기능은 정상이다.
- ② 미세침 흡입세포진 검사의 정확도는 90~95%이다.
- ③ 귀밀이 부으면 갑상선 질환을 의심해야 한다.
- ④ 우리나라 같이 요오드 섭취량이 많은 나라는 지나친 섭취로 오히려 질환발생을 증가시킬 수 있다.

2

인하대병원에 있는 특성화 센터가 아닌 것은?

- ① 여성암센터
- ② 소아화상센터
- ③ 소화기센터
- ④ 폐암센터

3

2009년 9월 15일 인하대병원이 외국인환자를 위한 외국인 전용 ○○○○○○를 개소했다.? 인천국제공항, 송도 국제도시, 경제자유구역과 인접해 있어 해외환자들에게 지리적 접근성이 우수한 인하대병원 ○○○○○○ 개소와 더불어 외국인환자의 진료 편의성 및 서비스 개선을 통해 향후 외국인환자 유치에 더욱 유리한 조건을 갖추게 되었다. 시설 뿐 아니라 진료의 전문성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영어, 일어, 중국어, 러시아어 등 각 언어별 전문코디네이터와 함께 이 양○○○○○소장이 새로이 부임하였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 이번 호에서 가장 좋았던 내용은?

● 편집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 보내시는 분의 연락처

● 앞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이나, 바라는 점이 있다면?

Quiz 정답

1

2

3

♣ 제49회 QUIZ 정답

- ① 2
- ② 4
- ③ 하이프

♣ 당첨을 축하합니다

- 주한규 인천 동구 송림동
- 김고은 서울 강서구 공항동
- 이기인 안산시 상록구 장상동
- 이혜수 CS팀
- 박민정 시설관리팀



인하의료원 발전기금 조성

■ 후원금 사용 용도

- ▶ 세계적 수준의 진료 및 임상의학 연구 지원
- ▶ 인천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지원

■ 참여 방법

- ▶ 현금, 유가증권, 부동산, 기타 현금화 가능한 자산 등 어떠한 형태로도 가능합니다.
- ▶ 온라인 입금, 자동이체, 신용카드, 급여공제 등의 방법으로 일시 혹은 분할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 개인, 단체, 법인 명의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 납입 방법

- ▶ 자동이체 : 거래은행 신청후 발전기금 담당자에게 전화 통보
(☎ 032-890-2601)
- ▶ 무통장 입금 : 하나은행 : 748-910002-39804
(예금주)인하대병원
- ▶ 발전기금으로 기부한 금액은 세제감면을 받을 수 있는 영수증을 보내드립니다.

▶ 기부약정서 및 상세 내용은 홈페이지(www.inha.com) 참조

◎ 총괄 현황 | 2009년 9월 15일 현재

기부자	약정액	납입총액	비고
256명	579,000,348원	479,235,498원	

◎ 기부자 현황 | 2009년 7월 16일 ~ 9월 15일 현재

일 자	성 명	약 정 액	비 고
09. 08.03	김영수	₩5,000,000	소화기내과(완납)
09. 08.05	박종운	₩3,000,000	신경외과(완납)
09. 08.28	조선신	₩400,000	서12병동(완납)
09. 09.20	오선영	₩200,000	원무보협팀(완납)

| 건강교실 안내 |

건강교실명	내 용	개최일시	개최장소	문의전화
출산준비 부부교실	• 임신, 분만에 대한 지식 및 산모체조와 진통시의 적절한 호흡법 교육 - 참가비 7만원	매주 (토) 오후 2시	3층 회의실	(032)890-2170
항암제를 맞는 환자 및 보호자 교육	• 항암 화학요법이란 무엇인가? • 항암 화학요법의 부작용과 대처방안 • 항암 화학요법을 받는 환자의 식사요법	매주 1회 (교육 신청시 안내)	3층 암센터	(032)890-2580
유방암 환자 교육	• 유방암 환자의 식이 • 유방암 수술 후 관리 및 임파부종 관리 • 유방전문의와의 상담 및 환우들과의 대화 - 유방암 환우 및 가족(유선 신청)	10월 8일(목) 오후2시~4시 홀수달 둘째주 수요일 짝수달 둘째주 목요일	3층 1 세미나실	(032)890-2560

| 무료공개 강좌 |

강좌 일자	강좌 내용	진료과목	담당교수
10월 12일(월) 14:00~17:00	간의 날- 공개강좌급성A형 간염 예방 및 치료 지방간 질환에 대한 이해	소화기내과	이정일 이진우
10월 15일(목) 14:00~	2009 핑크리본 유방암 건강강좌	외과	김세중

● 장소 : 병원 3층 대강당 ● 문의처 : 교육수련부(☎032-890-2640~2) ● 인터넷 홈페이지(www.inha.com)

| 갤러리 전시안내 |

전시 일정	제목	참여 작가
2009. 09. 18(토) ~ 2009. 09. 29(화)	조율展	이상영외 7인
2009. 09. 29(화) ~ 2009. 10. 24(토)	인천 미술작가 초대전	김정희 외
2009. 10. 24(토) ~ 2009. 10. 31(토)	김경선 개인전	김경선

인하대병원 진료안내

■ 대표전화 1600-8114(전국) ■ 외래진료예약 (032)890-2000
 ■ 종합검진센터 (032)890-3331 ■ 종합검진플러스센터 (032)890-3300 ■ 사이버나이프센터 (032)890-3076

• 청색 : 클리닉과 일반진료 병행 • (청색) : 클리닉만 진료

진료과	교수명	선택 진료	세부전공과목	진료요일		비고	진료과	교수명	선택 진료	세부전공과목	진료요일		비고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심장내과 (☎2200)	이우형	*	고혈압, 관동맥질환, 고지혈증	월, 금	화	심장혈관센터 (☎2440~1)	복막투석클리닉 (☎2535)	김문재	*	혈액투석, 복막투석진료	수		■폐임센터
	박금수	*	관동맥질환, 고혈압, 심장질환	월, 목	화			이승우	*	혈액투석, 복막투석진료		목	
	권 준	*	관동맥질환, 심장판막질환, 심근증	수	월, 목			송준호	*	혈액투석, 복막투석진료		화	
	김대혁	*	부정맥, 심신, 심박동기, 관동맥질환	수, 목	월			권수현		혈액투석, 복막투석진료	목	월	
	우성일	*	관동맥질환, 심혈관중재술, 고혈압	화, 금	월, 수								
	신성희		심부전, 고혈압, 심장판막질환	월, 화	목, 금								
	일 반		관동맥질환, 고혈압, 심부전		화, 수, 금								
소화기내과 (☎2224)	김영수	*	간질환, 간암클리닉, 위내시경	월, 목	화	내시경센터 (☎2540~1)	암센터 (☎2580)	김철수	*	혈액종양, 골수이식	화, 목		
	신용운	*	소화관질환, 위·대장질환	월, 금	수			이문희	*	혈액종양, 골수이식	월		
	이돈형	*	담도, 췌장질환, 위·대장내시경	화, 목	월		감염내과	정문현		감염성질환, 병원감염, 발열질환	월, 목	화	
	김형길	*	소화관질환, 소화관암, 대장질환	수, 금	월			이진수		해외연수(2009. 4 ~)			
	권계숙	*	소화관질환, 변비클리닉	수, 목	화			김미정		감염성질환, 병원감염, 발열질환	수, 금	월	
	이진우	*	간질환, 간암클리닉, 위내시경	화, 목, 금	목		류마티즈센터 (☎2210~1)	박 원	*	관절염, 골다공증, 루프스	화, 수, 목	월	
	정 석		해외연수(2009. 9 ~)					권성렬	*	관절염, 혈관염, 베체트, 레이노	월, 금	화, 수, 목	
	이정일	*	간질환, 간암클리닉, 위·대장내시경	월, 수	수, 금			임미진		관절염, 척추염, 통풍	화, 수, 목	월	
	김철현		간, 소화관, 담도, 췌장질환		월, 금		알레르기내과	최정란		관절염, 척추염, 통풍	화, 수, 목	월	
	박병도		간, 소화관, 담도, 췌장질환		목			일 반			금	금	
호흡기내과 (☎2219)	이홍렬	*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폐종양	화, 목 (금), 월	금	■폐임센터	내과계일반	김철우	*	천식, 만성기침, 두드러기 및 알레르기 질환	월, 수, 목	화	
	곽승민	*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폐종양	월, 화 (수), 금	수			일 반		전체적인 내과진료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폐암 센터 (☎3890)	류정선	*	호흡기질환, 폐종양, 만성폐질환	화, 목 (월), 목	화, 목 (월)	외 과 (☎2250)	김경래	*	소화기외과, 대장항문질환	월, 수		□여성암센터 △비만센터	
	조재화	*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집중진료의학	수, 목	월, 화 (수)		신석환	*	소화기외과, 위암	월, 목			
	남해성		호흡기질환, 폐종양, 만성폐질환	수	(화), (금)		홍기천	*	혈관이식외과	화	목		
	흉부외과	이홍렬		폐종양	금			안승익	*	간담도외과, 이식외과	목		화
		곽승민		폐종양	수			조영업	*	유방, 내분비외과	(월), (목), (토)		
		류정선		폐종양	화, 목		월	김세중	*	유방, 내분비외과	(수), (금)		(월)
		조재화		폐종양			수	이건영	*	간담도외과, 이식외과	수		금
		이현규		폐종양	월		목	허윤석	*	소화기외과, 위	(화), 금		화
	정신과	남해성		폐종양			화, 금	최선근	*	소화기외과, 대장항문질환	화	금	
		김광호		폐종양	화	목	최윤미	*	소아외과	금	월, 수		
김장택			폐종양	월	목	김장용		혈관내치료		월, 수			
당뇨내분비센터 (☎3360, 2215)	윤용한		폐종양	수	금	김 광		소화기외과, 대장항문질환		수			
	이명지		불안장애		화	이강연		유방, 내분비외과		(금)			
	이명지		불안장애		화	일 반			월, 목				
	이명지		불안장애		화								
비만 내분비내과 센터 (☎3360, 2215)	김용성	*	당뇨비만(성인)		목	△비만센터 △여성암센터(갑상선조직검사)	흉부외과 (☎2280)	김광호	*	폐질환, 식도질환, 다한증, 기흉	화(월), 목	화	■폐임센터
	김소현		성인비만, 대사증후군, 이형당뇨병		수			백완기	*	심장질환, 혈관질환	금	화	
	박지현	*	여성비만, 산후비만		월			김장택	*	심장, 혈관, 정맥류, 폐질환	월(월)	월, 목(월)	
	허윤석	*	BMI 30 이상 고도비만환자	화				윤용한	*	폐, 식도, 다한증, 기흉	수(월)	수, 금(월)	
	김연수		재활입술, 유방축소, 유방수괴절제술, 복부성형술		수			김영삼		일반흉부질환		금	
	김순기	*	소아비만	금									
	이진우		해외연수(2009. 9 ~)										
성형외과	이연지		인지행동요법, 체중감량 후 체력증진	월, 수	화, 금		신경외과 (☎2370)	박준은	*	척추, 척수, 디스크질환	화, 목	월, 목	★사이버나이프센터
	일 반		비만평가					박형천	*	척추, 척수, 디스크질환	월, 수	수	
	김연수		재활입술, 유방축소, 유방수괴절제술, 복부성형술		수			김은영	*	뇌신경외과, 뇌종양, 안면경련, 3차신경통, 소아	월, 수	월, 수	
	김순기	*	소아비만	금				박현선	*	뇌종양, 경동맥질환, 모야이병, 뇌혈관기형	월, 화(수), 목	목(수)	
청소년과	이지은		해외연수(2009. 9 ~)					현동근	*	뇌신경외과, 뇌혈관질환	수, 금	화, 금	뇌종양, 안면경련, 삼차신경통클리닉을 종합수요임
	이연지		인지행동요법, 체중감량 후 체력증진	월, 수	화, 금			윤소환	*	척추, 척수, 디스크질환	금	화 (수), 금(수)	
가정의학과	일 반		비만평가					김정민		척추질환		화, 금	
	일 반		비만평가					일 반				월, 목	
신장내과 (☎ 2229)	김문재	*	신장질환, 고혈압	월, 목	화	혈액투석진료	신장이식클리닉	김문재	*	신장이식	수		클리닉과 병행
	이승우	*	신장질환, 당뇨병성신증	화, 금	월, 수			이승우	*	혈액투석진료, 복막투석, 신장이식 진료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송준호	*	신장질환, 당뇨병성신증	수	월, 목, 금			권수현	*	신장질환	금	수	
	권수현		신장질환	금	수			김정민		척추질환		화, 금	
신장이식클리닉 (☎ 2533)	송준호		신장질환	금	수			김정민		척추질환		화, 금	
	송준호		신장질환	금	수			일 반				월, 목	
	송준호		신장질환	금	수			일 반				월, 목	

토요일 오전진료는 심장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류마티스내과, 정형외과, 비뇨기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정신과, 치과, 피부과만 가능하오니 기타 진료과의 응급환자는 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과의 사정에 따라 진료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창색 : 클리닉과 일반진료 병행 • (창색) : 클리닉만 진료

진료과	교수명	신력 진료	세부전공과목	진료요일		비고	진료과	교수명	신력 진료	세부전공과목	진료요일		비고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정형외과 (☎2380)	박승림		척추디스크 질환, 척추관협착증, 골절, 척추 및 사지	목			안과레이저(☎2400)	EYAL		레이저 클리닉		월 화 수 목 금	
	오인석 *		작부 및 족관절, 인공관절(슬관절, 슬관절, 골절, 슬관절)	월, 수	수			장태영 *		비과, 코(성형), 알레르기	수, 목	월	코성형 : 수요일 △아지라움클리닉
	김려선 *		스포츠의학, 관절, 슬관절, 족관절, 족관절, 관절염	목	화, 목			김영모 *		두경부종양(목), 음성언어(편도X)	화, 목	월	다명방(가톨릭)클리닉
	문경호 *		인공관절(슬관절, 골관절, 골다공증, 관절염)	화, 목	화			김규성 *		어지럼, 난청, 인공와우이식, 중이염, 편도	수(△), 금	화	다명방(가톨릭)클리닉
	김명구 *		스포츠의학, 관절, 관절염, 인공관절(슬관절, 관절염)	월, 수	수			최호석 *		중이염, 난청, 보청기, 인공와우, 편도	월	화	다명방(가톨릭)클리닉
	강준순 *		인공관절(슬관절, 골관절, 관절염)	월, 수	월			임재열 *		두경부종양, 갑상선, 음성장애, 편도	화, 목, 금	월, 수	
	조규정 *		척추질환, 디스크, 척추측만증, 골다공증	화, 금	수			김태연		비과, 부비동, 알레르기, 소아비인후과, 편도	금	월, 수	
	이동주		해외연수(2009. 9 ~)					김경태		두경부, 소아비인후과, 편도	월, 토	금	
	배주한		관절, 슬관절, 수부	금	월			일 반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정재훈		척추, 수부		화, 금		정신과 (☎3880)	강민희		정신분열병, 우울증, 일과조동, 노인성정신장애	수, 금	월	우울조울병클리닉
성형외과 (☎3870)	황 건 *		얼굴외상 및 기형, 선천기형, 미용	화, 목	화	■비만센터		김철웅		난치성 천식, 알레르기, 만성질환, 만성질환	월, 목	수, 목	조기정신병클리닉
	김연수		유방재건, 미세수술, 미용	월, 금	수(■)			이정섭 *		소아정신질환(과), 학습-주의-장애, 아동장애	월	화, 목, 금	한양대클리닉(성신대)가톨릭
	유선혜		유방재건, 유방성형, 미용수술, 미세수술	수	월, 금			배재남 *		노년기 우울증, 기억장애, 치매, 노년기 정신장애	화, 목	월, 수, (목)	△치매조기검진클리닉
	일 반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이영지		소아청소년정신과, 성인정신과	수, 월, (화), 금	월, (화), 금	다명방(가톨릭)클리닉
피부과 (☎2230)	최광성 *		모발, 조피질환, 여드름, 모발이식, 피부외과, 레이저	월, 화, 목	수, (목)	△피부미용레이저클리닉	신경과 (☎3860)	하충건 *		운동장애, 퇴행성질환	화, 수	수, 목	운동장애클리닉
	신정현 *		아토피피부염, 알러지, 색소질환, 두드러기, 피부미용, 레이저	수, 금	월, 화, (금)	△미용외과클리닉		나정호 *		뇌혈관질환, 뇌졸중	화, 목	화, 목	뇌졸중클리닉
	이현숙		건선, 여드름, 바캠프, 피부미용외과	(수), 목	(수), 목, 금			최상혜 *		치매, 기억장애	수, 금	화, 수	기억, 언어장애클리닉
	일 반			월, 금	월, (화), 수			윤창호 *		간질, 수면장애	월, 금	월, 수	수면클리닉
비뇨기과 (☎2360)	서준규 *		성기능장애, 여성배뇨장애, 불임	화, 금	화			송은철 *		말초신경질환, 자율신경질환, 동통, 뇌졸중	화, 목	월, 금	
	박원희 *		요실금, 종양, 전립선질환	월, 수	수			지기환		간질 및 하지불안증후군	금	수, 목	
	윤상민 *		종양, 결석, 신시인	월, 목	목			일 반			수	월, 금	만5세 이상 진료가능
	성도환 *		종양, 결석, 전립선질환	화, 금	화		재활의학과 (☎2480)	정한영 *		뇌졸중, 중풍, 뇌혈관질환, 장애, 뇌신경	월, (금), 수	월	#뇌신경클리닉
	이택 *		소아비뇨, 소아 및 성인배뇨장애, 야뇨증	목	월, 목			김정환		근골격계통증, 요통, 요통, 말초신경병	화, 수	목	*언어장애
	류지간 *		전립선질환, 요로결석, 비뇨기외상	수	월, 수			김명옥		척추손상, 언어장애, 발통증, 외지보조기	목	월 화 (목), 금	△족부클리닉
산부인과 (☎2270)	일 반		일반비뇨기	월, 화, 목, 금				일 반		일반재활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이우영 *		부인과종양	월 화 목 금		□여성암센터	가정의학과 (☎2240)	최지호		가족건강관리, 금연	월, 화, 목	화, 수, 금	진전센터가견
	이병익 *		종양학, 불임, 폐경기	수, 금	월, 목	△비만센터		이연지		항노화영양치료, 생활습관교정, 스트레스	(월), 수, 금	월 화 수 목 금	△비만센터
	송은섭 *		부인종양	월 화 수 목				일 반		신체검새유학, 비자용) 영문진단서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황성욱		해외연수(2009. 9 ~)				국제진료센터(☎2080)	이 양		일반내과	월 화 수 목 금	월, 수, 금	
	박지현 *		주산기외과, 산과초음파	월, 수	(월), 수, 목			이두익		통증치료	화	화	
여성암센터 (☎2560)	성승미		산과, 내시경	목, 금	화, 금			차영덕 *		통증치료	월, 수, 금	월, 금	
	신부인과			월, 목, 금				이재학		통증치료	목	화	
	송은섭 *		부인과종양	화, 수			영상의학과 (☎2740)	일 반			수, 목	수, 목	
	황성욱		해외연수(2009. 9 ~)					김원홍		HIFU 초음파 치료	월, 수	월 화 수 목	
	조영업 *		유방, 내분비외과	월, 화, 목				조순구 *		중재적 방사선학	월, 수, 목	월, 수, 목	
영상의학과 (☎2560)	김세중 *		유방, 내분비외과	수, 금	월			전용선		해외연수(2009. 3 ~)			
	이강연		유방, 내분비외과		금		방사선종양학과 (☎3070)	김우철 *		소화기암, 폐암, 뇌암, 두경부암, 혈액암, 유방암	화, 목, (금), 수	월, (화), 목	*사이버비이프센터
	김윤정		유방방사선학		(월), 수(■)	■암모니터링		김현정		유방암, 비뇨기과암, 두경부암, 부인암	월, 수	(월), 수, (목), 금	치명성암도 치료
	이명지		불안장애		(화), 수(■)	○중앙스트레스클리닉		일 반			금	화, 목	
	홍성빈		갑상선 검사		(화), 수	△갑상선초음파조직검사		김우철 *		소화기암, 폐암, 뇌암, 두경부암, 혈액암, 유방암	금	화	
	손병관		알레르기, 호흡기, 면역질환	월	목	만5세까지 소아과진료		김현정		유방암, 비뇨기과암, 두경부암, 부인암	화	월, 목	
소아청소년과 (☎2260)	홍영진 *		심장, 감염	목, 금	월		사이버 나이프 중앙학과 센터 신경외과 (☎3076)	박현선		뇌종양, 뇌혈관기형	화	목	
	김순기 *		혈액, 종양, 내분비, 비만, 성장	수, (금)	월, 목	□비만센터		윤순환		척추, 척수, 원발성종양	수, 금	수, 금	
	전운홍 *		신생아, 미숙아, 발달	목, 금	화, 수	△소아내시경		현언인 *		동위원소치료	월, 화, 수	월, 화, 수	
	임대현 *		알레르기, 호흡기, 면역, 결체조직	화, 금	월, 수			임종한		환경질환, 화학물질관리, 직업성질환/질환, 고압에	화, 목	화, 목	
	김정희 *		알레르기, 호흡기, 면역, 결체조직	월, 수	화, 금			박신구		직업관련, 근골격계질환, 사망원인, 보건관리	월, 금	월, 금	
	권영세 *		신경, 간질, 두통	화, 수	월, 금		치과 (☎2470)	김현철		뇌, 심혈관질환, 알레르기, 알레르기, 알레르기	수	수	
안과 (☎2400)	이지은		해외연수(2009. 8 ~)					김일규 *		구강 악안면외과, 임플란트, 맥식	월 화 수 목 금	화, 목	임플란트클리닉
	강성길		소화기, 소아내시경	월, 수, 목	(월), 화, 금			오남식		보철과, 임플란트보철, 심미보철	화, 목, 금	월, 화, 금	
	일 반			수, 목				정금수		구강외과	수, 목	월, 수, 금	
	오중협 *		백내장, 녹내장	월, 목	화	형광/광우원/도도클리닉		이연화		교정과	월, 수, 금	화, 수, 금	
	문연성 *		망막, 유리체, 포도막	수, 목	월			송경화		보존과	월, 화, 수, 목	화, 목	
	진희승 *		망막, 유리체, 백내장	수, 금	월		응급의학과(☎2301)	일 반		응급의학, 약물중독	수	수	
	강성모		안성형, 사시	월, 수	금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안과 (☎2400)	일 반			화, 목, 금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Cyberknife



최첨단 기술의 융합으로 탄생된 현존 최고의 암 치료기 - 무통 무혈 ‘로봇 사이버나이프’

| 4차원 로봇 사이버나이프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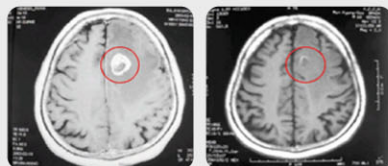
유럽, 아시아에서 최초로 도입되는 실시간 종양 추적 초정밀 로봇 사이버나이프는 신체 장기 움직임을 추적하는 시스템, 척추 암 자동 추적 시스템을 갖춘, 기존의 4세대 사이버나이프보다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된 4차원 사이버나이프로 실시간 영상 유도 기술, NASA의 우주 항법 기술, 컴퓨터, 로봇팔 등의 최첨단 기술이 융합되어 신체 어느 부위라도 안전하게 방사선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치료 가능한 질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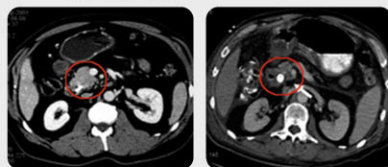
- | 뇌종양 | 악성뇌종양 : 전이성 뇌종양, 다발성 뇌종양
양성뇌종양 : 청신경초종, 뇌수막종, 두개인두종, 뇌하수체종
- | 체부종양 | 전립선암, 폐암, 간암, 췌장암, 비뇨기계암, 척추종양,
전이성 척추암, 원발성 척추암, 전이성 간암, 전이성 폐암 등
- | 두경부종양 | 갑상선암, 안와종양, 상악동암, 비 인강암, 뇌기저부 종양
- | 뇌신경, 혈관질환 | 뇌동정맥기형, 해면혈관종

이외에 재발암, 수술적 치료가 불가능한 다발성 종양, 기존 방사선 치료에 효과가 없는 종양 등 다양합니다. 정확하고 강력한 방사선 조사량으로 고령 및 몸이 불편한 환자들도 3~5일 정도의 짧은 시간에 치료 받을 수 있으며, 1회 치료시간은 1~2시간이고 불규칙한 모양이나 크기가 큰 종양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뇌종양 뇌실질 정상 조직은 피하면서 종양에만 정밀 치료



췌장암 췌장은 주변에 피해야할 중요한 기관들이 많으므로
로봇 수술이 적합



간암 간기능 보존 치료

